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0.txt

제목: 인삼서 진세노사이드 추출 독보적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4100000110  
ID: 01101101.201406241000001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14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녹십자HS<br/> <br/> ^녹십자HS(대표 유영효)는 고부가가치 인삼 제품화 기술(BST)을 이용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R&D 중심 생명공학 기업이다.<br/> ^인삼 뿌리에는 200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중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일정하게 추출해내는 기술은 인삼성분이 든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녹십자HS는 다년간의 연구 끝에 ‘미량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증가된 가공인삼 또는 가공인삼추출물의 제조방법’(BST 기술)에 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했다. <br/> ^BST 기술이 적용된 ‘어삼’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드링크, 정제, 캡슐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br/> ^녹십자HS는 BST 특허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암 환자들의 전신무력증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에서 의약품 임상 승인 절차에 따라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임상 2상 준비 중에 있다. 의약품 개발의 성공으로 상용화가 될 경우 전세계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1.txt

제목: 의료분야 로봇 활용 글로벌 리더는 한국  
날짜: 20140619  
기자: 조철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9100000068  
ID: 01101101.2014061910000006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세대 로봇혁명을 다룬 특집 기사에서 한국을 의료분야에서 로봇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꼽았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 1위인 미국을 제외하면, 잘 정비된 정보기술(IT)분야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한국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span class='quot0'>한국에서는 수술용 로봇을 통해 연간 6,000건의 암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span>”고 전했다.<br/> FT는 한국의 벤처기업 큐렉소를 이 분야 대표기업으로 소개했다. 한국 증시에도 상장된 큐렉소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화된 수술로봇(로보독ㆍRobodoc)을 개발한 회사다. 이 로봇의 대당 가격은 약 100만달러(10억원)인데, 세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현존하는 3개 의료로봇 모델 중 하나다. <br/> FT에 따르면 로보독은 지금까지 3만건의 인공관절 교환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 집도 의사들은 이 로봇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CT촬영으로 얻은 자료를 3차원 영상으로 전환해 무릎이나 엉덩이뼈 수술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산 미래병원 강남욱 원장은 “<span class='quot1'>로봇을 이용하면 정확한 부위에 최소한의 수술이 가능해져, 수술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복속도도 훨씬 빠르다</span>”고 말했다.<br/> 물론 고가의 장비를 쓰는 만큼 로봇을 이용한 외과수술 비용은 일반 수술보다 30% 가량 비싸다. 큐렉소 이재준 대표는 그러나 “<span class='quot2'>세계에서 가장 일찍 상용화에 성공한 로보독이 앞으로도 더욱 시장을 확장할 것</span>”이라고 예상했다.<br/> 한편 FT는 류렉소와 같은 벤처기업 이외에도 과거 1세대 로봇에 주력했던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대기업도 2세대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2.txt

제목: 대한기능의학회 만성병 치료 대국민 강좌 外  
날짜: 2014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8100000029  
ID: 01101101.20140618100000029  
카테고리: 국제  
본문: 대한기능의학회 만성병 치료 대국민 강좌<br/> 대한기능의학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올바른 음식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만성병 치료하기 대국민 강좌’을 연다. 대국민강좌에는 캐나다 존 클리네 박사와 세계노인의학회 회장을 지낸 유병팔(사진) 텍사스주립대 의대 명예교수가 나서 각각 ‘해독으로 만성병 치료하기’, ‘절식과 운동으로 건강 지키기’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br/> <br/> 연세사랑병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강연<br/>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사진) 병원장과 최윤진 세포치료연구소장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재생학회(TOBI)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해 ‘퇴행성관절염의 지방줄기세포 치료효과 연구’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정형외과 분야 비(非)수술적 치료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홍콩 등 18개국 500여명의 의과학자들이 참가했다.<br/> <br/> 한국먼디파마, 소아암 환자에 500만원 기부<br/> 한국먼디파마(대표이사 이종호)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직원 참여형 자선 기금 프로그램인 ‘희망 저금통’ 활동을 통해 마련한 ‘희망나눔기금’ 500만원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다.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먼디파마 희망 꽃바구니’ 와 가정에서 상비해야 하는 구급상자를 열여섯 가족에게 전달했다.<br/> <br/> 바이로메드, 중국서 신약개발 박차<br/> 바이오기업 ㈜바이로메드가 최근 중국에서 시행 중인 허혈성 지체질환 치료제 ‘VM202-PAD’2상 임상시험에 성공했다. 허혈성 지체질환은 다리 부위의 말초동맥혈관이 막혀 생기는 질환으로 악화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VM202-PAD는 허혈성 질환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신개념 치료제다. 중국에는 허혈성 지체질환자가 3,000여만명이나 된다.<br/> <br/> 한미약품, 차세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개발<br/> 한미약품이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차세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HM71224’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유럽 류마티스관절염학회에서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1상 임상시험을 끝내고 올 하반기에 글로벌 2상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로 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3.txt

제목: 한국철강협회,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 외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9100000158  
ID: 01101101.20140609100000158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한국철강협회,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br/><br/> 한국철강협회는 9일 윤상직(왼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오준(다섯번째) 포스코 회장, 장세주(맨 오른쪽) 동국제강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선재 국산화를 이뤄낸 고려재강의 이태준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해외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철강재 판매 확대에 기여한 포스코 오인환 전무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6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br/> <br/>대한상의, 총 상금 1억원 규모 ‘제1회 대한민국 기업 사진 공모전’<br/><br/>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최대 규모 사진공모전 ‘제1회 대한민국 기업 사진 공모전(사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삶 그리고 사람들’을 주제로 기업과 관련된 사진이라면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작품 수도 제한이 없다. 응모 기간은 10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총상금 1억원 규모인 이번 공모전은 국내 사진 공모전 중 역대 최대규모로 대상 1인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br/> <br/>현대제철 신임 사장에 강학서 재경본부장<br/><br/>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현대제철 강학서(사진) 재경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강 신임사장은 현대제철 재경본부 이사와 상무, 전무를 거쳐 경영관리부문 부사장, 현대로템 재경본부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br/> <br/>LGU+, 케이블 교체 없이 기가급 인터넷 구현 장비 개발<br/> LG유플러스는 기존의 케이블 선로 교체 없이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기가급으로 상향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장비는 통신 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으로, 종전 케이블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속도는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 장비는 LG유플러스에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인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등과 함께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개발했다.<br/> <br/>삼성전자, 실외기 없는 휴대용 냉방기기 ‘쿨프레소’ 출시<br/> 삼성전자는 실외기 없이 이동까지 편리한 휴대용 냉방기기 ‘쿨프레소’(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에어컨과 같은 냉방원리로 작동하지만, 실외기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게 특징이다. 주변 온도보다 10도 가량 낮은 찬 바람을 내보내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선풍기 2대를 켜 놓은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기 중 유해 세균을 잡아주는 정화 기능도 포함됐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9만원대.<br/> <br/>우정사업본부, 알뜰폰 판매 우체국 읍·면 지역 130곳 추가<br/> 우정사업본부는 10일부터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130곳 추가, 총 359곳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시·군·구 단위 226개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7개월여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연말까지 6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 <br/>SKT, 브라질 월드컵 기간엔 LTE 데이터 로밍 ‘공짜’<br/> SK텔레콤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브라질에서 데이터 로밍 전용 정액 요금제인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초고속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한국 대표팀 경기 당일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서비스 자체를 공짜로 제공하고, 16강 진출 시 문자메시지(SMS) 발신, 8강 진출 시엔 음성 발신까지 무료 지원할 방침이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는 전 세계 123개국에서 하루 9,000원에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br/> <br/>롯데백화점, 친환경 영수증 도입<br/> 롯데백화점은 유해성 물질인 비스페놀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영수증 용지를 6월부터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비스페놀은 영수증에 인쇄되는 글자의 색을 나타내는 현색제에 포함된 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br/> <br/>세븐일레븐, 상지영서대와 ‘편의점관리론’ 신설<br/>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9일 강원 원주시 상지영서대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학기부터 편의점 관련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에 편의점 관련 강의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지영서대가 유통경영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편의점관리론’은 생활밀착형 유통업태인 편의점의 진열, 전산, 물류, 상품 등 분야의 현장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강의이다. <br/> <br/>CJ대한통운, 실시간 국제물류 화물 추적 시스템 <br/> CJ대한통운은 고객맞춤형 국제물류 정보시스템 ‘커스터머 포털’의 업그레이드 버전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고객사 담당자들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웹(m.cj.korex.co.kr)으로 언제 어디서나 화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4.txt

제목: 전혀 다른 업종 간 '짝짓기 마케팅' 뜬다  
날짜: 20140604  
기자: 박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4100000007  
ID: 01101101.20140604100000007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우량 고객 유치해 매출에 긍정적 평가<br/> <br/> <br/><br/> 올 초 세탁회사 크린토피아는 KDB대우증권으로부터 화이트칼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해보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받았다. 두 회사는 협상에 성공해 지난 1일부터 크린토피아가 세탁 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옷걸이를 활용해 대우증권 상품을 소개하고 뒷면에 있는 쿠폰을 가지고 대우증권 지점을 찾아오면 3,000원짜리 와이셔츠 세탁 상품권을 나눠주는 마케팅을 시작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3일 “<span class='quot0'>직장인 상당수가 은행보다 증권사 문턱을 높게 여기고 있어, 이들을 증권사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와이셔츠 세탁을 활용해 보기로 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매달 180만명이 이용하는 크린토피아가 와이셔츠 세탁을 주요 매출원으로 하고 있고 옷걸이를 활용하면 반복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클 것</span>”이라고 기대하고 있다.<br/> 새 고객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독특한 짝짓기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영역에서 짝꿍을 찾고,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br/> 미래에셋생명은 4월부터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MSD와 손잡고 암 예방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MSD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등 암 예방 백신(PHV)를 맞은 사람이 ‘예방하자 암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할 경우 월 납입액 3~7%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원하면 한국MSD가 추천하는 전문의에게 상담 예약을 제공해주고 있다.<br/> 서귀영 미래에셋생명 마케팅지원본부 차장은 “<span class='quot1'>암 예방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암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난 두 달 동안 비슷한 타사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새 가입자를 확보할 만큼 성공적</span>”이라고 평가했다.<br/> SK텔레콤은 지난달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한항공 엑설런트 T로밍’ 상품을 내놓았다. 항공사와 통신사의 첫 제휴 상품이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 중국 일본을 찾는 SK텔레콤 고객에게 음성 데이터 SMS 패키지를 최대 79% 할인(요금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경우)해주는 혜택을 준다.<br/>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짝짓기는 공통적으로 ‘핀셋 마케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핀셋으로 작은 물체를 콕 집는 것처럼 특정 고객을 콕 집어 그들만을 위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 고객층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공략하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이 비교적 덜 들고 실질 구매력을 갖춘 우량고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SK텔레콤 제휴사업본부 송석근 매니저는 “<span class='quot2'>다양한 로밍 상품이 있지만 막상 해외 여행객, 출장자 등이 잘 모르거나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해외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좌석 배정이나 짐 부치기 위해 항공사 카운터를 찾기 때문에 이 곳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짝짓기 상대기업들도 뜻밖의 마케팅 홍보 활동 기회를 얻게 되면서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암 예방 백신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30대 여성층인데다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방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 KDB대우증권 측은 별도로 1억원 어치 크린토피아 상품권을 구매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b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b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5.txt

제목: 화학물질에 점령당한 식탁, 우리는 매일 독을 먹는다  
날짜: 20140519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9100000101  
ID: 01101101.201405191000001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죽음의 식탁<br/> 마리 모니크 로뱅 지음ㆍ권지현 옮김<br/> 판미동 발행ㆍ640쪽ㆍ2만8,000원<br/> <br/> ‘환경운동의 어머니’ 레이첼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을 출간했다. DDT 등 살충제가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비판한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비견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은 또 환경운동의 흐름을,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서 시혜를 베풀 듯 다른 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존주의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환경주의로 바꾸었다. 그 책 침묵의 봄이 나온 지 50여년. 그러나 죽음의 식탁을 읽으면 “살충제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생제”라는 카슨의 테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r/> 죽음의 식탁은 밭에서 쓰는 농약에서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플라스틱 용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추적해 밝힌 책이다. 전작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명세를 탄 저자는 프랑스의 언론인으로 지난 수십 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이 의문을 풀려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에서 과학자, 활동가, 규제기관 대표 등 50여명과 인터뷰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일상을 점령한 수만 개의 화학물질이 그들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밝힌다.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독’으로 바꾼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도 낱낱이 파헤친다. <br/> 저자는 먼저 농작물 재배에 쓰는 농약에 주목했다. 기업이 ‘식물 약제’라는 이름으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을 ‘식물의 건강과 식품의 질을 보호하는 약’으로 둔갑시켜 농부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다. <br/>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연구자들을 암암리에 돈을 주고 고용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리처드 돌과 페토의 ‘1981년 발암 원인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담배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주도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훗날 이 연구의 방법론적 오류가 밝혀졌고 연구를 집행한 리처드 돌이 화학업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까지도 담배 악영향 연구가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증가를 가리는 위장막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br/> 저자는 “<span class='quot0'>화학물질 유해성 기준이 되는 일일섭취허용량과 잔류농약최대허용량의 개념은 기업과 규제기관이 합작해 멋대로 정한 속임수</span>”라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독극물의 최대량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기준이다. 잔류농약최대허용량 또한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기업의 영업기밀로 분류돼 확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보건당국과 규제기관들은 이 개념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는 것이다. <br/> 저자는 “<span class='quot0'>이처럼 기만적인 연구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아스파르탐,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독성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식탁 위로 버젓이 올라와 우리는 매일매일 독을 먹고 있다</span>”고 말한다. 아스파르탐은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까닭에 ‘코카콜라 제로’ 등 음료수, 시리얼, 껌, 술 등 6,000개의 식품과 300개 이상의 의약품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뇌 속 화학작용을 바꿔 뇌종양, 간질 등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제조 기업과 결탁한 규제기관들의 묵인 속에서 사용이 승인돼 현재 전 세계에서 2억명이 섭취하고 있다. 불임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용기, CD, 젖병, 음료수캔 등에 쓰이고 있다. 이 물질은 음식물과 접촉하면 그 안으로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내분비계를 교란해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유방암을 일으킨다. 극소량으로도 아주 위험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 일일섭취허용량 제도로는 통제가 어렵다. 이밖에 내분비계교란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암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제초제 아트라진 등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br/> “<span class='quot1'>독성화학물질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먹으라</span>”는 저자는 “<span class='quot1'>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것이 기업과 규제기관의 논리이기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질병을 양산하는 독성화학물질이 우리 일상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span>”고 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지금 환경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을 소상히 밝힐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둘러싼 음모를 추리 소설처럼 파헤쳐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6.txt

제목: 후코이단, 추출 원료에 따라 효능이 달라  
날짜: 2014051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6100000039  
ID: 01101101.20140516100000039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지난 4월 말, 종합편성채널 TV 조선의 ‘만물상’ 프로그램을 통해 후코이단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라는 사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섭취량 1위인 일본에서, 후코이단에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기능이 있다는 것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후코이단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후코이단의 강력한 항암 효과가 인정되어 항암 치료의 일환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한다.<br/><br/>후코이단은 미역이나 다시마, 모즈쿠(큰실말) 등과 같은 갈색을 띠는 해조류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천연 성분인데, 어떤 종류의 갈조류에서 추출하느냐에 따라 후코이단의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부가 인증한 NPO 후코이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뉴질랜드 통가 지역 등에서만 서식하는 모즈쿠(큰실말) 추출 후코이단의 경우,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유도 작용(암세포 자살유도 기능)이 가장 탁월하며, 미역귀 후코이단은 신생 혈관 억제 기능이 다른 어떤 갈조류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해초에서 유래한 후코이단을 혼합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보여진다. <br/><br/>하지만 실제로 국내의 시중 제품이나 아마존 닷컴 등과 같은 해외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통해 후코이단을 검색해보면 주로 한 종류의 후코이단을 사용한 제품, 즉 단일 후코이단 제품은 많이 볼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후코이단을 사용하는 복합 후코이단 제품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 중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제품만이 유일한 복합 후코이단 제품이며 일본, 미국, 홍콩 등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br/><br/>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암세포 자살 유도를 가장 잘 한다고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암세포의 전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갈조류로 알려진 미역귀(메카브)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버섯 균사체로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된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총 세 가지 성분이 함유된 복합 후코이단 제품이다.<br/><br/>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후코이단의 효능을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라면, 모즈쿠 후코이단, 미역귀 후코이단, 아가리쿠스 균사체가 혼합된 복합 후코이단 제품을 고려해 볼만하다.<br/><br/>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문의 1877-8881<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7.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효과 밝혀  
날짜: 20140515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000214  
ID: 01101101.2014051510000021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람마다 재능과 성격이 다르듯, 같은 질병이라도 개인별로 치료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같은 약을 먹어도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작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제각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br/><br/>특히 암처럼 치료가 복잡하고 개인차가 심할 때는, 대규모 집단조사의 평균적인 결과에 기초한 임상시험에 따른 치료방식보다는 개인별 맞춤치료, 개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br/><br/>개별화의료(Personalized medicine)란 환자의 질병을 분자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치료방식이다. <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질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로 진행성 암과 침윤성 암도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일은 아니다</span>”고 전했다. 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매년 난치성질환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단체다. <br/><br/>아베종양내과는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암별 종양마커 검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과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여, 더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면역계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에게 암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span>”고 설명했다. <br/><br/>아울러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기존 치료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를 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량 채혈로는 불가능해 1시간 이상의 성분채혈과정을 필요로 하고, 동결보관 후 사용하면 해빙 시 세포손상이 있어 치료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에 아베종양내과는 소량의 혈액(25mL)에서 수지상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구를 분리하여 유전자검사와 각종 기능검사를 한 후 개인별 맞춤형 항원을 추가, 암백신을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구는 혈액 중 약 8%가 있으며, 1996년 일본의 아카가와 키요코박사가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 유도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세계유수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기존 수지상세포 치료에는 WT1과 MUC1 펩타이드만 사용하고 있지만, 아베종양내과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를 하여 개인에 맞는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제조에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사용한다</span>”고 말했다. <br/><br/>즉,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WT1펩타이드를 사용하며,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MUC1펩타이드와 개별 특이적 암 항원 등 3~5종류의 펩타이드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NY-ES01, GV1001펩타이드가 추가되어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다. 치료는 2주에 1번씩 수지상세포의 정보 전달을 하는 암별 해당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한다. <br/><br/>실제 아베종양내과는 이 같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전이·재발암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70%의 효과를 보았으며,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39명의 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복합면역세포’로 치료한 결과, 74.4%의 효과를 거뒀다고 제 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결과는 치료 전후 영상진단과 종양마커검사, EGFR, K-ras, p-53검사, 48종류의 암 관련 유전자검사, 14종류의 암 억제 유전자검사, 4종류의 약제내성 유전자검사 등으로 확인했다. <br/><br/>한편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아베종양내과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결과를 추가로 밝힐 계획이며, 이외에도 ‘암 면역세포의 오늘과 내일’, ‘암 면역치료의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8.txt

제목: [경제 브리핑] CJ오쇼핑,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外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14266189  
ID: 01101101.2014051510014266189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CJ오쇼핑은 15일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오쇼핑은 글로벌 상품소싱 자회사인 CJ IMC의 세계 유통망을 활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자문 및 상품기획, 매장 입점 등을 지원한다.<br/><br/><br/><br/>4월 완성차 수출액 48.3억달러… 사상 최대실적<br/><br/><br/><br/>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완성차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18.9% 늘어난 48억3,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종전 최대치는 작년 12월에 기록한 47억3,000만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와 신형 쏘나타, 한국GM의 말리부 디젤 등 신차 판매 호조와 평균 수출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KT-서울대,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 공동 설립<br/><br/><br/><br/>KT는 서울대와 손잡고 7월까지 유전체 분석과 연구에 필요한 위한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공동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전체 분석기술을 활용하면 암 발병 가능성 예측이나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 양측은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미국의 브로드연구소처럼 세계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다.<br/><br/><br/><br/>쿠팡,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캄씨 인수 <br/><br/><br/><br/>쿠팡은 미국의 기술기업 '캄씨'(CalmSea)를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캄씨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br/><br/><br/><br/>갤럭시, 브라질월드컵 국가대표 공식 단복 협찬 <br/><br/><br/><br/>삼성에버랜드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는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의 공식 단복을 협찬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럭시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 스태프 등 58명에게 수트, 바지, 티셔츠, 타이, 구두 등을 지원한다.<br/><br/><br/><br/>SKT-NHN엔터, 모바일 게임시장 활성화 제휴<br/><br/><br/><br/>SK텔레콤과 NHN엔터테인먼트는 15일 모바일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신작 게임을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br/><br/><br/><br/>SPC그룹 국내 첫 프랑스 원맥 도입 <br/><br/><br/><br/>SPC그룹은 국내 처음으로 프랑스 원맥을 들여와 파리바게뜨의 제빵 원료로 사용한다고 15일 밝혔다. SPC는 1차분 110톤을 포함해 올해 총 250톤의 프랑스 원맥을 들여와 바게트 빵의 원료로 쓸 예정이다.<br/><br/><br/><br/>대한항공, 1분기 영업이익 212억원… 흑자전환<br/><br/><br/><br/>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에 21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수요확보 노력과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br/><br/><br/><br/>아시아나항공, 1분기 21억원 영업손실<br/><br/><br/><br/>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4,148억원,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4% 줄었지만, 영업손실은 190억원 감소했다.<br/><br/><br/><br/>서울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개소<br/><br/><br/><br/>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 '서울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를 열였다. 어울림센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립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09.txt

제목: “매월 휴대전화 15시간 사용시 뇌종양 3배 높다”  
날짜: 2014051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4100000024  
ID: 01101101.20140514100000024  
카테고리: 국제  
본문: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면 뇌종양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대학 이자벨 발디 박사는 최근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 달에 15시간 이상씩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밝혔다.<br/><br/>발디 박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뇌종양 환자 447명과 건강한 일반인 892명의 휴대전화 사용량 등을 비교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br/><br/>발디 박사는 특히 지속적으로 고객이나 상사와 통화하는 사람이나 회의가 많은 영업 및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br/><br/>대부분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매월 약 2시간 반 정도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반면에 바쁜 경영진은 훨씬 높은 수치에 도달한다. <br/><br/>발디 박사는 위험 범주는 2년에서 10년 사이로 평균 5년 정도라고 말했다. <br/><br/>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 등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유형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ISPED 연구소의 로저 살라먼은 “겁먹을 필요는 없다. 휴대전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0.txt

제목: 화학물질에 점령당한 식탁, 우리는 매일 독을 먹는다  
날짜: 20140509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9100000208  
ID: 01101101.201405091000002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환경운동의 어머니' 레이첼 카슨은 1962년 을 출간했다. DDT 등 살충제가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비판한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에 비견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은 또 환경운동의 흐름을,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서 시혜를 베풀 듯 다른 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존주의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환경주의로 바꾸었다. 그 책 이 나온 지 50여년. 그러나 을 읽으면 "살충제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생제"라는 카슨의 테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r/><br/>은 밭에서 쓰는 농약에서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플라스틱 용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추적해 밝힌 책이다. 전작 으로 유명세를 탄 저자는 프랑스의 언론인으로 지난 수십 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이 의문을 풀려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에서 과학자, 활동가, 규제기관 대표 등 50여명과 인터뷰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일상을 점령한 수만 개의 화학물질이 그들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밝힌다.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독'으로 바꾼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도 낱낱이 파헤친다. <br/><br/>저자는 먼저 농작물 재배에 쓰는 농약에 주목했다. 기업이 '식물 약제'라는 이름으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을 '식물의 건강과 식품의 질을 보호하는 약'으로 둔갑시켜 농부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다. <br/><br/>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연구자들을 암암리에 돈을 주고 고용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리처드 돌과 페토의 '1981년 발암 원인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담배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주도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훗날 이 연구의 방법론적 오류가 밝혀졌고 연구를 집행한 리처드 돌이 화학업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까지도 담배 악영향 연구가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증가를 가리는 위장막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br/><br/>저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기준이 되는 일일섭취허용량과 잔류농약최대허용량의 개념은 기업과 규제기관이 합작해 멋대로 정한 속임수"라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독극물의 최대량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기준이다. 잔류농약최대허용량 또한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기업의 영업기밀로 분류돼 확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보건당국과 규제기관들은 이 개념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는 것이다. <br/><br/>저자는 "이처럼 기만적인 연구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아스파르탐,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독성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식탁 위로 버젓이 올라와 우리는 매일매일 독을 먹고 있다"고 말한다. 아스파르탐은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까닭에 '코카콜라 제로' 등 음료수, 시리얼, 껌, 술 등 6,000개의 식품과 300개 이상의 의약품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뇌 속 화학작용을 바꿔 뇌종양, 간질 등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제조 기업과 결탁한 규제기관들의 묵인 속에서 사용이 승인돼 현재 전 세계에서 2억명이 섭취하고 있다. 불임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용기, CD, 젖병, 음료수캔 등에 쓰이고 있다. 이 물질은 음식물과 접촉하면 그 안으로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내분비계를 교란해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유방암을 일으킨다. 극소량으로도 아주 위험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 일일섭취허용량 제도로는 통제가 어렵다. 이밖에 내분비계교란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암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제초제 아트라진 등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br/><br/>"독성화학물질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먹으라"는 저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것이 기업과 규제기관의 논리이기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질병을 양산하는 독성화학물질이 우리 일상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지금 환경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을 소상히 밝힐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둘러싼 음모를 추리 소설처럼 파헤쳐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br/><br/><br/><br/>권대익기자 dk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1.txt

제목: [Check! 건강소식]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 外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76  
ID: 01101101.2014041710000027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br/><br/>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가 5월 15일까지 '제4회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아동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비만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물을 홈페이지(www.designkahp.com/designkahp2014/)를 통해 출품하면 된다. 일반부와 학생부 등 총 5개 부문에서 2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02)322-7005<br/><br/>파킨슨병 양ㆍ한방 협진<br/><br/>강동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가 자세가 불안정하고 걷기가 어려워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의 입원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침과 봉독약침, 뜸, 부항, 한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병원 측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 정도가 18.3에서 8.7점으로, 운동기능장애 정도가 16.7점에서 10.0점으로 호전됐다고 밝혔다. <br/><br/>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조감도 공개<br/><br/>이화여대 의료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2017년 준공 예정인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설계안을 확정하고 조감도(그림)를 공개했다. 모든 병실이 1인실 구조이며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5월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가 201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br/><br/>세브란스병원 암병원 개원<br/><br/>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연세암병원을 개원하고 14일 진료에 들어갔다. 5년 이상 생존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재발이나 전이, 후유증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암 생존자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 제공과 상담은 물론 전원(轉院) 과정까지 지원하는 '굿닥터팀'을 배치했다. 병원 측은 로보틱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최신 치료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고 소개했다. <br/><br/>고대구로병원 암병원 개원 <br/><br/>고려대 구로병원이 암병원을 새로 열고 14일 진료를 시작했다. 기존의 일일항암치료실을 확장해 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진료부터 치료까지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걸리는 기간도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독창적이고 난이도 높은 복강경 수술을 비롯한 최소침습수술, 첨단 방사선 치료와 표적항암치료 등으로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돕겠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2.txt

제목: 시진핑, 파워 블로거 쉐만쯔 석방 지시  
날짜: 20140417  
기자: 박일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09  
ID: 01101101.20140417100000209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의 인터넷 논객인 쉐만쯔(薛蠻子)가 구속 8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br/><br/> 베이징(北京)시 공안국은 17일 병이 심할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의 화교 벤처 사업가인 쉐만쯔의 병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1,155만명의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 팔로워를 자랑하는 쉐만쯔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 사회 현실 등을 비판하며 큰 인기를 누리던 중 지난해 8월 갑자기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체포된 뒤 관영 언론을 통해 ‘자아비판’을 하고 다른 인터넷 논객들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br/><br/>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迅)은 쉐만쯔의 병보석 허가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쉐만쯔의 부인이 시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암을 앓고 있으니 병 치료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br/><br/> 그러나 중국 법원은 이날 쉐만쯔와 비슷한 시기에 ‘공공질서문란죄’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친즈후이(秦志暉)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통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이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br/><br/>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3.txt

제목: '주민 찾아가는 건강관리' 쪽방촌 80%가 서비스 받아  
날짜: 20140416  
기자: 정승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6100000006  
ID: 01101101.2014041610000000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서울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 10가구 중 8가구의 건강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br/><br/>서울시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독거 노인, 쪽방촌,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취약계층 22만2,959명의 건강을 돌봤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으로 서울 쪽방촌 전체 가구의 81%인 2,559가구가 건강관리를 받았다.<br/><br/>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혈압, 당뇨,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혈압 환자에겐 스스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기기를 제공하고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도 투입된다. 지난해 전문인력 357명이 하루 평균 6.7가구를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br/><br/>관리 대상자는 고혈압환자가 8만3,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6만2,197명) 당뇨(3만4,794명) 뇌졸중(1만1,227명) 암(1만249명) 순이었다.<br/><br/>서울시에 따르면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실제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한 비율은 전체 관리 대상자의 62.1%로 서울시 전체 걷기 실천율(52.1%)보다 높았고 흡연율도 12.7%로 서울시 전체 흡연율(23%)보다 낮았다. 특히 식이요법과 약 복용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 대상자는 각각 5만8,546명(69.8%)과 2만800명(59.8%)으로 국내 고혈압 조절률(42.9%)과 당뇨 조절률(28.5%)을 크게 웃돌았다.<br/><br/>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방문 인력이 지난해 취약계층 4만10가구를 새로 발굴해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에 등록했다"며 "앞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br/><br/>정승임기자 choni@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4.txt

제목: 사용자의 인식을 디자인한다… 애플의 또 다른 천재 '조니'  
날짜: 20140411  
기자: 오미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1100000239  
ID: 01101101.20140411100000239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 혁명을 넘어 사고ㆍ생활방식 혁명까지 일으킨 애플의 이 제품들은 모두 한 사람의 손을 거쳐 나왔다. 스티브 잡스가 '내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렀던 애플의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 조너선 아이브(47)다. <br/><br/>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지만, 그의 삶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영국 출신이고, 1997년 잡스와 의기투합하면서 둘이 함께 애플 신화를 썼다는 게 고작이다.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는 내성적 성격과 애플의 철저한 비밀주의에 가려진 탓이다.<br/><br/>그의 삶과 경력, 디자인 철학을 자세히 밝힌 것은 '위대한 디자인 기업 애플을 만든 또 한 명의 천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가 유일하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닷컴의 뉴스 편집자였고, 현재 애플 관련 최고의 인기 블로그인 컬트오브맥닷컴을 운영하는 리앤더 카니가 애플의 전ㆍ현직 직원을 중심으로 약 200명을 취재해 썼다. 원서는 지난해 나왔다. <br/><br/>아이브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해 왔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 보인다. 상냥한 말씨의 영국 신사라는 이미지 뒤로 일에는 철저하고 집요한 전문가, 뛰어난 리더로서 그의 초상화가 보인다. 디자이너이자 영국 디자인 교육정책가였던 아버지의 영향,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심어준 뉴캐슬 과학기술대의 교육, 로버츠 위버 그룹과 탠저린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등 애플 입사 전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도 전달한다.<br/><br/>이런 전기적 사실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디자인 철학이다. "물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디자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플 제품이 디자인 혁명을 넘어 우리 삶에 근본적 혁신을 일으킨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음매나 나사못 하나 보이지 않는 애플 제품의 지독한 미니멀리즘은 군더더기 없이 본질만 남을 때까지 줄이고 줄인 끝에 나온다. 그의 궁극 목표는 디자인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디자이너가 내 면전에 대고 자신의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제품을 접하면 정말 짜증난다"며 "우리 목표는 단순한 제품"이라고 말한다. <br/><br/>잡스는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브는 애플에 남았다. 현 CEO 팀 쿡조차 그를 위해 일한다고 할 만큼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후계자" "조니(조너선의 애칭)가 애플을 떠난다면 잡스 사망보다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는 과언이 아니다. 잡스 없는 애플은 어디로 갈까. 애플 최고의 혁신가 아이브를 소개한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구할 수 있다.<br/><br/><br/><br/>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5.txt

제목: 황사 먼지·중금속에 지친 몸… '보약 음식'으로 다스려볼까  
날짜: 20140404  
기자: 유상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4100000037  
ID: 01101101.20140404100000037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이맘때면 삼겹살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비곗살의 기름이 몸 속에 낀 먼지를 닦아내 밖으로 배출해 준다는 믿음 또는 기대 때문이다. 근거가 있는 믿음일까. 황사에 미세먼지에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겹쳐진 4월, 우리의 몸을 지켜줄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br/><br/>돼지고기 <br/><br/> 미끈한 기름이 세제 역할을 해서 고깃덩어리가 몸 속의 먼지를 박박 닦아 낸다는 건 취기가 충분히 오른 술자리에서나 통할 얘기. 물리적인 흡착포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돼지고기가 황사에 좋다는 얘기가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돼지고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탄산가스를 중화해 폐에 쌓인 유해 물질을 중화한다. 수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돼지고기는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위장에서 이런 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 <br/><br/>도라지, 더덕, 칡 <br/><br/> 도라지는 예로부터 호흡기 질환의 주요 약재로 쓰였다. 쌉싸래한 맛을 내는 것이 사포닌 성분으로 호흡기 내 점막의 점액 분비량을 두드러지게 증가시킨다. 들이마신 먼지는 기관지를 타고 폐로 내려가는데 점액이 늘어나면 폐에 닿는 먼지가 줄어들게 된다. 천식 등 목이 아픈 질병에 도라지가 특효인 것이 이 때문. 더덕 또한 사포닌 함유량이 높다.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한다. 더덕에 많은 이눌린 성분도 폐를 보호한다. 칡에는 몸 속에서 유해 금속 이온과 착염(錯鹽)을 형성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제거에 도움이 된다. <br/><br/>미역, 굴, 전복 <br/><br/> 미역의 끈적거리는 점액질은 알긴산이라는 식물섬유의 일종이다. 중금속이 몸 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효능이 있다. 알긴산은 소화되지 않고 모두 배설되는데 늘어난 변이 중금속뿐 아니라 환경호르몬, 발암줄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그래서 황사를 '닦아 낸다'는 표현은 사실 돼지고기보다 미역에 더 어울린다. 굴과 전복엔 무기질이 풍부한데 특히 아연이 많다. 아연은 체내에 쌓인 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전복은 눈이 침침할 때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먼지로 인해 생긴 시신경의 피로 증세를 풀어준다. 전복을 말리면 표면에 오징어처럼 흰 가루, 타우린이 생긴다. 타우린도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br/><br/>명태 <br/><br/> 명태는 천연 해독제로 불릴 만큼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크다. 숙취 해소, 간장 해독, 노폐물 제거에 두루 약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 옛날 시골에선 농약, 지네 독, 연탄가스 따위에 중독됐을 때 명탯국을 끓여 먹는 것이 민간요법이었을 정도. 메치오닌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지친 간을 보호해 준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몸 속의 오염 물질 배출을 돕기도 한다. 피로 해소를 돕는 베타인, 타우린도 풍부하다.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고 알레르기에서 비롯된 질병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황사와 함께 꽃가루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봄철에 명태가 좋은 이유다. <br/><br/>마늘, 양파 <br/><br/>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각광 받는 마늘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마늘에 많이 함유된 유황 성분은 체내로 들어온 수은과 결합해 배설된다. 미세먼지 속의 수은은 체내에서 만성 피로, 고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유황은 중금속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양파에도 유황 성분이 비교적 풍부하다. 양파는 항균효과도 있어 박테리아균을 죽인다. 생양파를 몇 분 동안 씹는 것만으로 입 속의 해로운 균을 청소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많은 철에 양파가 좋은 이유다. 양파에 있는 알롬이라는 물질은 기관지 보호 효과가 탁월하다. 양파에서 뽑아낸 알롬으로 기침과 콧물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기도 한다. <br/><br/>배, 매실, 오미자 <br/><br/> 호흡기 계통 질환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과일은 배다. 목과 폐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분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어 목이 아플 때,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학교 선생님이나 성악가 등 성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배를 먹으면 목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배의 사각사각한 식감은 식이섬유의 일종인 리그닌 때문인데 이것 또한 이물질 배출을 활발하게 한다. 매실은 각종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매실엔 구연산이 사과의 30배 이상 들어있다. 이것이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 오미자는 면역력을 높이고 폐를 튼튼하게 해 역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br/><br/>물, 녹차 <br/><br/> 위에 쓴 모든 음식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값싸게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것은 바로 물이다. 하루에 10잔 정도 물을 마시면 건조해지기 쉬운 기관지의 수분을 유지하고 체내 노폐물을 그때그때 배출할 수 있다. 따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공기 중의 오염 물질과 접촉하는 피부 세포를 보호한다. 녹차는 아미노산과 무기질, 섬유소 등이 풍부해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 특히 녹차의 탄닌 성분은 살균 효과가 탁월하다. 모과, 오미자, 구기자, 옥수수 등으로 만든 차도 체내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유상호기자 shy@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미세먼지에 불티나는 金겹살… 한달 새 30%가격 급등<br/>▶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삼겹살은 오히려 '독'?<br/>▶ "한·일 스모그 오염, 우리 책임 아니다" 뻔뻔한 중국<br/>▶ 中전문가 "스모그, 사스보다 훨씬 위험할 가능성"<br/>▶ 중국발 초미세먼지, 중금속 범벅이 사실로<br/>▶ "중국 최악의 스모그는 방사능 탓" 괴담<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6.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방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결과 밝혀  
날짜: 20140325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5100000201  
ID: 01101101.201403251000002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초청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br/><br/>초청 세미나는 지난 1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진행됐다. <br/><br/>이날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발표, 이를 통해 기존 암 치료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과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백치료는 정상 혈액 가운데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 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한 방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를 암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 약 2~3시간 동안 성분 채혈을 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정보를 기준으로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원리다. 따라서 CTL이 정상세포를 공격할 위험이 거의 없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없다. <br/><br/>암항원 인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베종양내과는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1번~449번까지 있는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기간을 6~9개월까지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지금까지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해 암 치료 효과가 저조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타이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포함해 평균 3~5개의 펩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우수하다</span>”고 말했다. <br/><br/>아울러 “일본 내 대부분의 병원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해 사용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떨어졌던 단점을 해결했다”며 “본 병원에서는 매번 소량만 채혈함으로써 선도 높은 백신 제조가 가능토록 했다”고 전했다. <br/><br/>아베종양내과는 이 같은 암치료 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통해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 암세포가 완전 관해 된 환자 2명(5.12%), 부분 관해 된 환자 5명(12.82%),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 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으로 나타났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에 대한 추가 임상연구결과는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학회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다. <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7.txt

제목: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효과적인 유효치료율 기대  
날짜: 20140320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0100000116  
ID: 01101101.201403201000001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대진단 의학의 발달로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아직도 암은 치료를 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생각되기 쉽다. 현대인의 6대 질병인 암은 고통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다.<br/><br/>의학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제4의 치료법인 면역요법과 같은 암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국내 환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br/><br/>특히 일본 큐우슈우지역 구마모토에 소재한 암 면역 전문병원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이하 ‘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면역세포치료는 면역세포의 동시배양을 통해 면역세포가 팀이 되어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이다. <br/><br/>센신병원 측에 따르면 박사가 개발한 5종복합면역요법을 수지상세포에 인식시킨 DC-아이백/WT1요법으로 암 환자들의 유효 치료율을 70%이상 끌어올렸다고 밝혔다.<br/><br/>현재 박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은 DC-아이백/CSC요법인데, 일명 ‘암줄기세포 특이항원면역백신요법’이다. <br/><br/>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 암 줄기세포는 평소 휴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암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원리다.<br/><br/>츠네오 박사는 일본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항원을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br/><br/>특히 5종복합면역요법과, 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 그리고 암 줄기 세포 특이항원 펩티드가 결합된 DC-아이백/CSC요법으로 75%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기대하고 있다.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 치료법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br/><br/>현재 츠네오 박사의 센신병원은 일본 정부의 지원금으로 도쿄에 제2병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 지역 내의 35여개의 제휴병원을 통해 암 치료를 위한 수지상세포 면역세포를 제공 중이며 수지상세포치료를 표준 치료로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8.txt

제목: 구운 토마토가 정력회복과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4100000084  
ID: 01101101.2014031410000008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80도가 넘는 열을 가한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심혈관계 질환과 암 예방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br/><br/>또 토마토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력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흔히 우리는 정력에 좋다고 생각되는 보양식으로 보신탕, 장어, 추어탕을 떠올리는데 유럽에서는 이 토마토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br/><br/>일찍이 영국에서 정력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러브애플'로 불려온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리코펜(Lycopene)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정력과 함께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br/><br/>특히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45% 낮아져, 토마토가 남성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또 토마토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좋다. 비타민C와 수분 등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회복 시켜주고, 각종 유기산이 비타민과 함께 작용해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토마토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 중 하나인 변비를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다.<br/><br/>☞ 88도 열 가해 만든 토마토환 구매하기<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19.txt

제목: 아산의학상에 서판길·이경수 교수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1100000379  
ID: 01101101.201403111000003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서판길(62ㆍ왼쪽) 울산과학기술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경수(57ㆍ오른쪽)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아산의학상 기초의학ㆍ임상의학 부문 수상자로 11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서 교수가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인 세포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 연구로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밝혀냈고, 이 교수는 영상 장비를 이용해 폐암 조기 진단과 암 진행 상태(병기) 결정 방법을 실용화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0.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국내 세미나 예정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13694389  
ID: 01101101.201403101001369438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전이·재발암 치료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초청 세미나가 오는 1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r/><br/><br/><br/>이번 세미나는 한국 ACC바이오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백신 치료법은 1996년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가 세계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됐다. 또 같은 해 세계 유수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2011년에는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의대 교수가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의 연결고리인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밝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 별종양마커 기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 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br/><br/><br/><br/>실제로 히로유키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 2명(5.12%), 부분 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 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이다. <br/><br/><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인체의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는 약 2~3시간의 성분채혈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마련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한다. 따라서 CTL가 정상세포를 공격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다. <br/><br/><br/><br/>아베종양내과는 암항원 인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WT1’과 ‘MUC1’ 펩타이드를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br/><br/>아베 이사장은 “지금까지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을 사용해 치료효과가 떨어졌다”며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전했다. <br/><br/><br/><br/>WT1 펩타이드는 1번부터 449번까지 있으며 WT1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하게 한다.<br/><br/><br/><br/>또한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일본 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해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베종양내과에서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개선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한편 한국 ACC바이오측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베 이사장의 신수시장세포 임상도서 ‘암, 이젠 치료할 수 있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베종양내과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결과에 대한 추가발표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마련될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br/><br/><br/><br/><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1.txt

제목: 첨단 내시경, 꼭꼭 숨은 암도 찾아낸다  
날짜: 20140309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9100000126  
ID: 01101101.201403091000001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위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07~2011년 발생한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1990년대 중반보다 26.6% 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시경이 위암의 조기 발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몸 안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의료기기는 50년 전인 1964년 개발됐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의 전신이다. 이제 내시경은 의사가 구별하기 어려운 암까지 찾아내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다. <br/><br/>내시경은 사실 19세기부터 있었다. 당시 내시경은 거울이나 마찬가지였다. 반사경과 램프를 단 금속관을 목, 항문, 요도 쪽으로 넣어 반사돼 나온 빛을 의사가 관 끝에서 관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속관이 인체의 장기를 치거나 찢는 사고가 빈발했다. 게다가 관에서 나오는 빛이 충분하지 않고 전달도 잘 안돼 식도나 방광처럼 가까운 장기 말고는 관찰이 어려웠다. <br/><br/>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는 염화비닐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호스 내부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사용했다. 공기를 주입해 위를 부풀린 뒤 기구를 삽입, 사진을 찍고 필름을 현상해 위 내부를 확인하는 기술이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고통은 줄었지만 장기 내부를 실시간 관찰하는 이점은 사라졌다. <br/><br/>환자 안전과 실시간 관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광섬유다. 전기나 빛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는데다 잘 구부러지기도 한다. 미세한 광섬유 수만 가닥을 묶고 끝에 카메라를 단 내시경(파이버 스코프)이 1964년 등장했다. 현대적 의미의 내시경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카메라에 들어온 빛 데이터가 원통형 광섬유 구조 안에서 굴절을 반복하며 의사의 눈으로 전달되는 원리다. 2년 뒤에는 이 기구로 조직 일부를 떼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채취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면서 위암 검진이 본격화했다. <br/><br/>내시경은 1980년대 또 한번 크게 변한다. 빛을 전자신호로 바꿔 모니터로 전달하는 기술이 적용(비디오 스코프)돼 여러 의료인이 검진 데이터를 공유하게 됐고 내시경 끝부분에 처치 도구를 달아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br/><br/>요즘 내시경은 장기 안을 비출 때 백색광을 주로 쓴다. 백색광은 햇빛처럼 여러 색깔(파장)의 빛이 적당한 비율로 합쳐진 빛을 말한다. 백색광으로 장기 안을 들여다보면 벽면이 대부분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병변이 독특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지만 매끈하거나 편평하면 경험 많은 의사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 가장 최근 업그레이드된 내시경은 빛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이런 한계를 해결했다. <br/><br/>빛은 파장 영역에 따라 침투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란 빛(파장 440~500nm)을 쏘면 장기 조직 표면 아래 부분까지만 흡수되며 초록빛(520~565nm)을 쏘면 더 깊숙이 들어간다. 그래서 조직 표면과 가까운 혈관은 주로 파란 빛을, 심층부 혈관은 초록 빛을 흡수한다. <br/><br/>이 원리를 이용, 장기 내부 모세혈관의 위치와 모양 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시경을 최근 개발한 광학기업 올림푸스는 "암 조직은 세포 증식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모세혈관을 많이 만든다"며 "따라서 자세한 모세혈관 영상은 암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br/><br/>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대개 1~4기로 구분한다. 심찬섭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색깔이 구분돼 보이는) 최신 내시경을 쓰면 기존 내시경으로는 암인지 모호한 병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암의 전 단계인 선종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2.txt

제목: [World] 세계인의 식단 밀·쌀·콩·육류에 의존 '닮은꼴 변모'… "질병에 취약" 경고음  
날짜: 20140307  
기자: 이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7100000304  
ID: 01101101.201403071000003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세계인의 저녁 식사 메뉴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br/><br/> 콜롬비아의 국제열대농업센터의 연구진은 지난 50년간 보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종류의 농작물과 육류 유제품 등에서 대부분의 칼로리와 단백질 지방 등을 섭취하게 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br/><br/>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달라진 식습관이 심장질환이나 암,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전세계 식단이 주요 농작물 몇 가지로 집중되면서 세계의 식량자원이 해충과 질병 등에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경고했다. <br/><br/> 연구진들은 1961년부터 2009년까지 152개국의 식재료에 관한 유엔의 자료를 검토했다. 전체적으로 음식의 양이 늘었고, 밀은 전체 국가의 97.4%에서, 쌀은 90.8%, 콩은 74.3%의 국가에서 주요한 식재료로 소비되고 있다. 육류가 점차 단백질 섭취에서 더 중요한 공급원이 됐고, 콩과 옥수수, 팜, 해바라기 등 기름을 생산하는 농작물이 주요 표준 식량자원 자리에 오르게 됐다. <br/><br/> 개발도상국의 소득이 높아지며 육류와 설탕함유 음료 같은 전형적인 서구식 음식의 소비도 늘어났다. 나이지리아에서 중국까지 비만과 심장질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로이터에 말했다. <br/><br/> 연구 책임자인 콜린 코우리는 "사람들이 밀이나 옥수수 콩 유제품 육류 등 주요 식재료만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중된 식단은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br/><br/> 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땐 식단의 다원화도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 식단에서 밀과 감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코우리는 "이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배했던 다른 많은 농작물들이 점차 재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br/><br/>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입이 늘면서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 것도 이유다. 패스트푸드가 풍부한 도시로의 이주와 다국적 식품회사의 마케팅 등 도 변화의 주요요인이다. <br/><br/> 식단의 동질화로 이제껏 지역적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던 고구마, 얌, 사탕수수, 마카 등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필요한 지방의 원천인 코코넛을 덜 먹게 됐고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도 쌀에서 얻는 칼로리를 점차 줄이고 있다. <br/><br/> 연구진들은 밀과 쌀 감자 등으로 집중되는 식단이 위험하다며 세계인의 식탁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호밀, 얌, 카사바 같은 농작물의 보존이 시급하고, 식량 안전을 위한 식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모든 농작물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코우리는 "유전적 집중은 장래에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840년대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이나. 1970년대 초 미국의 남부 옥수수 잎마름병 사태 등이 하나의 농작물에만 의존했을 때의 위험성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br/><br/> 더블린 기술연구소 존 커니는 건강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사람들의 식단을 바꾸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북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과일과 채소을 먹고 육류를 줄이는 지중해식 건강 식단을 취하고 있고, 반면 남부 유럽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줄이고 육류를 늘이고 있다고 한다.<br/><br/><br/>이성원기자 sung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3.txt

제목: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까지… 암 검진 클릭하면 '기겁'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5100000045  
ID: 01101101.20140305100000045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연아아 미안해'에 이어 '암 검진 대상' 스미싱이 등장했다. <br/><br/>지난 17일부터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도 화들짝 놀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br/><br/>공단은 4일 페이스북에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메세지에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통지서 확인' '국민건강보험무료 암검진 대상'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있다. 이 URL을 클릭하면 악성앱이 깔리는 것으로 보인다. <br/><br/>공단 측은 "공단이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다"며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네티즌들은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하다 하다 별"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해도 너무하다"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사기꾼들 기발하네"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무심코 클릭하면 안되겠구나"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이슈만 있으면 편승하는구나"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어르신들 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4.txt

제목: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기승…'기재된 사이트 접속 조심'  
날짜: 2014030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4100000221  
ID: 01101101.2014030410000022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스미싱'<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br/><br/>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발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 무료암 검진대상입니다' '2014년도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검진을 받으십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앱이 깔리는 웹사이트 주소나 전화번호를 함께 전송된다.<br/><br/>공단은 이와 관련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이어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공단은 이달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스미싱"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클릭할 뻔 했네"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주화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5.txt

제목: 스미싱 문자,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날짜: 20140304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4100000133  
ID: 01101101.2014030410000013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스미싱 문자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며 건강검진 받으라는 문자로 위장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br/><br/>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이다.<br/><br/>공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2,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로 발송하고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1577-1000), 공단의 인터넷주소(http://www.nhis.or.kr)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열지 말아야 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br/><br/>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들어 있는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건강검진 및 무료 암 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떠도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6.txt

제목: [View] CT·X선 검사 잦은데… 방사선 노출량은 알고 있나요  
날짜: 20140228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8100000244  
ID: 01101101.2014022810000024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한 40대 초반 여성 이모씨는 폐 CT와 흉부 X선 영상을 찍었다. 촬영이 끝나자 CT와 X선 장비에 각각 0.35, 0.012mSv(밀리시버트)라는 수치가 기록됐다. 영상을 찍는 동안 이만큼의 방사선에 이씨가 피폭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br/><br/>영상 검사가 점점 늘면서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mSv로 5년간 약 51%나 늘었다. 하지만 의료용 영상을 찍은 뒤 방사선 피폭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환자도, 알려주는 병원도 아직은 드물다.<br/><br/>더 큰 문제는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의학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연간 피폭량이 1mSv를 넘으면 안 된다는 국내외 기준이 있긴 하나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건강에 도움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생긴 피폭이라서다. 영상 촬영으로 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로 얻는 피해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도 키 170㎝, 몸무게 70㎏인 성인을 기준으로 인체 부위별 방사선 노출 권고량을 정해놓긴 했으나 이를 넘지 말라는 의무는 없다. 방사선량에 상한선이 있으면 암 치료 등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br/><br/>병원마다 나오는 방사선량도 천차만별이다. 식약처가 2007~2009년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 흉부 X선은 병원 간 최대 32배까지 차이가 났다. 두부는 28배, 유방 5배, 복부 7배, 골반 22배가 각각 차이가 났고 요추의 경우 37배에 달했다. 두부와 복부 CT는 각각 9배 차이였다. 장비 노후화와 환자 체형, 촬영 방식, 판독 기술 등 여러 이유가 작용해 나온 결과다. 일반적으로 기기가 오래되거나 성능이 떨어질수록 방사선이 더 나온다. 환자 몸집이 클수록 피폭량도 많다. 같은 기기로 같은 부위를 같은 의료진이 촬영했을 때 환자 체형에 따라 많게는 약 70％까지 피폭량이 차이 난다는 보고도 있다. <br/><br/>영상 촬영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촬영기사가 기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의 한 영상의학과 교수는 "PET-CT를 찍을 때 방사성동위원소를 많이 넣으면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환자는 방사선에 더 피폭된다"고 말했다. 촬영된 영상을 판독하는 의사의 성향도 피폭량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가 노이즈(필요 없는 신호) 없이 깨끗한 영상을 봐야겠다고 하면 (촬영기사가)방사선 노출량을 높여 찍기도 한다"고 이 교수는 귀띔했다. <br/><br/>여러 요인이 방사선 피폭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알 길이 없다. 얼마나 피폭되면 몸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유전자가 손상된다고는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24시간 안에 복구되지만, 일부는 손상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피폭된 유전자가 공교롭게도 암을 억제하는 부위거나 인체에 불리한 돌연변이로 바뀔 경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br/><br/>결국 현재로선 환자나 병원이 자발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검사 중 노출된 방사선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차병원그룹의 의료센터 차움은 "환자의 누적 방사선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방사선이 안 나오는 초음파나 MRI로 대체하는 등 피폭량을 최소 범위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많진 않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CT에서 나온 방사선 정보를 환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고, 이달 중 병ㆍ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쓰겠다는 곳에 한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전국 의료기관 약 1,500곳 중 400여 곳만 사용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br/><br/>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상 검사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방사선 피폭량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지난해부터 의료용 영상을 판독할 때 의료진이 피폭선량을 기입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핵의학과나 영상의학과 등에선 자칫 환자들이 꼭 필요한 검사를 방사선 피폭 걱정 때문에 거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 5년 새 51%나 증가<br/>▶ "엑스레이 찍다 기준치 초과 방사선량 노출 많아"<br/>▶ [기자의 눈] 방사선 쬔 식품, 명칭만 바꾼다고 안전해지나<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592원짜리 약을 "5원에 납품하라"<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7.txt

제목: "가장 아름다운 순간 찍어두자" 미국 신혼부부들 웨딩 포르노 붐  
날짜: 20140228  
기자: 김현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8100000246  
ID: 01101101.20140228100000246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결혼식에 맞춘 웨딩 사진과 함께 '웨딩 포르노' 촬영이 새 신혼풍속도가 돼 가고 있다고 미국 ABC가 27일 보도했다. <br/><br/>이 방송에 따르면 전문 사진작가인 콘스탄스 포크와 에릭 보겔은 최근 새로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하는 사업이란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이나 결혼기념일을 맞은 신혼부부들의 '개인 포르노'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고객들이 이들의 눈 앞에서 섹스를 하는 동안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데 한 커플 당 비용이 약 4,000달러(427만원)에 달하지만 최근 고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br/><br/>개인 포르노를 찍는 심리는 간단하다. 결혼식을 앞둔 연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젊은 날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웨딩 사진을 찍는 것처럼 웨딩 포르노도 얼마든지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개인용 누드 사진을 찍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br/><br/>또한 신혼부부가 점차 느슨해지는 서로의 애정 관계에 불을 지피기 위해 개인 포르노 촬영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들이 찍은 포르노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개인 소장용으로만 간직된다. 보겔은 ABC와 인터뷰에서 "고객들이 찍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시중의 성인 포르노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중에는 기독교인도, 마지막일지도 모를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암환자도 있었다"면서 "이들이 찍은 개인 포르노는 아름다웠고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나 성문제 전문가인 로간 레카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이 "사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과잉 공유하는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생활은 어느 사회든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낯선 사진작가의 눈 앞에서라도 얼마든지 전라의 몸으로 내보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br/><br/>실제 미국의 한 인터넷사이트는 각 부부들이 자신들의 성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신디 갤럽은 "섹스를 (금기의 영역에서)사회화하고 싶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다른 콘텐츠처럼 섹스도 얼마든지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을 대중에 공개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정적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br/><br/>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이혼녀와 정 나누는 총각 늘어나는 까닭?<br/>▶ 유부녀가 남편 아닌 남자에 감정 느끼더니..<br/>▶ 재벌가 이혼녀까지… 달라진 스타의 애정행각<br/>▶ '성생활 없는(?)' 연예계 쇼윈도 부부 결국…<br/>▶ 남친이 잠자리에서 이런 경악할 요구한다면…<br/>▶ 여친 앞 방귀 뀌면 안되는 이유 있었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8.txt

제목: HPV 백신, 다발성 경화증 유발 등 이상 반응 연관성 증거 없어  
날짜: 20140227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7100000092  
ID: 01101101.2014022710000009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GACVS, Global Advisory Committee on Vaccine Safety)는 최근 주간감염병학지(Weekly Epidemiological Record)를 통해 HPV 백신 접종이 다발성 경화증을 비롯한 자가 면역 질환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br/><br/>위원회는 미국, 호주 및 일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HPV 백신 ‘가다실®’의 제조사인 MSD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HPV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의심됐던 길랑바레 증후군, 발작, 뇌졸중, 정맥혈전색전증,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신 중 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 역시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br/><br/>스웨덴 및 핀란드에서 약 100만명의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여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HPV 백신을 접종한 30여 만 명에게서 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 또는 정맥혈전색전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br/><br/>또한 미국에서 약 20만명의 여자 어린이 및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최소 1회 이상 HPV 백신을 접종한 접종군이 비접종군보다 16개 유형의 자가면역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나지 않았다.<br/><br/>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HPV 백신 접종으로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했다는 사례와 관련하여 약 200만명의 12~16살의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HPV백신 접종군이 비접종군보다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입원률이 증가했다고 보기엔 부족함을 보였다. <br/><br/>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HPV 백신 접종이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효과 있는 백신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이에 한국 MSD 의학부 김진오 이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발표는 HPV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 생각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MSD는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이와 같은 연구에 동참할 예정이고,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통해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한편, 가다실®은 지난 해 10월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이상반응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4가 HPV 백신 가다실은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HPV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을 도울 수 있다. 132개 국가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HPV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 52개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었다.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남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26세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9~26세 남성 및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과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29.txt

제목: 국산 백혈병신약 ‘슈펙트’,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 3상 돌입  
날짜: 2014022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6100000159  
ID: 01101101.201402261000001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산 백혈병신약 ‘슈펙트’(성분명 : 라도티닙·사진)가 내년 1차 치료제로 진입하기 위한 3상에 들어간다.<br/><br/>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슈펙트의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한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2년6개월 만에 마치고 3상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상기간은 1년이다.<br/><br/>일양약품은 2011년 8월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동남아 의료기관 등 국내외 24개 대형병원에서 진행할 3상 환자 240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br/><br/>3상이 끝나면 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현재 2차 치료제에서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초기환자도 처방이 되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된다. <br/><br/>글리벡 내성 치료제인 타시그나(노바티스)보다 약값이 절반 가량 저렴한 슈펙트가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을 경우 글리벡 등 경쟁약물과 효능과 가격에서 고가의 다국적사 백혈병치료제 처방이 힘든 국내 및 전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br/><br/>또한 슈펙트는 건강보험재정 기여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일양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슈펙트의 3상 환자 등록 완료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개발된 이 국산 신약이 전세계 백혈병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다국적사와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중국 등 글로벌 진출에도 청신호</span>”라고 말했다.<br/><br/>슈펙트는 거대 백혈병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약효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일양약품과 중국 고우시 정부가 투자 설립한 ‘양주일양 유한공사’를 통해 ‘신약 판매 및 기술이전’에 관한 중국 수출 계약이 성사됐고 중동의 라이프파마사와도 수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br/><br/>2003년 백혈병 유도체 개발을 시작으로 전임상과 임상을 거쳐 2012년 1월 국산 18호 신약으로 허가된 슈펙트는 출시 당시 하루 약값(800㎎) 6만4,000원의 경제적 약가로 다국적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신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또한, 글리벡 등 기존 치료제보다 주요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높고 안전성이 뛰어난 슈펙트는 초기반응도 및 약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유효율도 글로벌 제품과의 간접 비교에서도 우수한 유효율을 나타냈다.<br/><br/>단일과제로는 대규모인 4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슈펙트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혈액학회저널 ‘블러드(Blood)’지와 세계적 뉴스 제공업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지에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되기도 했다.<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0.txt

제목: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스피치&협상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중  
날짜: 2014022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6100000175  
ID: 01101101.20140226100000175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지난 2월 5일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는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제10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10기 주요 수료자는 박성래 우성실업 회장, 김우화 미오림복지재단 이사장, 조용진 국민은행 동부지역 본부장, 이경호 우드마트코리아 대표, 이외자 함라초등학교 교장, 김정수 기업은행 지점장 등이었다. <br/><br/>2009년 4월에 1기가 처음 시작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5년간 5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현재 제11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다.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제11기는 2014년 3월 19일에 교육을 시작하여 7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br/><br/>본 최고경영자과정은 중소기업체 CEO들이 스피치와 협상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한 CEO 교육과정이다. 최근에는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있어 스피치와 협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CEO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br/><br/>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피치와 협상에 대한 기술이 필수적이고 이는 교육과 실전 훈련에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br/><br/>본 교육과정의 스피치 교육내용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피치 비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피치 기술, 임기응변을 이용한 대중 스피치 기법, 지도자의 연설과 성공 리더십, 오바마처럼 말하고 소크라테스처럼 협상하라, 동영상 스피치 실습, 스피치 경연대회를 통한 개인별 코칭, 칭찬의 힘, 격려의 기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화술과 인간관계, 유머의 원리와 기법, 조직을 죽이고 살리는 리더의 언어,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 확 꽂히는 말, 대화와 협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 NLP를 통한 스피치 & 협상 기술 습득, 경청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마법의 스피치 법칙, 성공 프리젠테이션 스킬과 CEO 전략 커뮤니케이션, CEO의 실용 스피치 기법과 기업경영 커뮤니케이션, 경영자와 근로자의 갈등해소와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스토리텔링, 언론홍보의 이해와 대언론관계 관리, PCT(Public Communication Training) 기법을 통한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등이 있다. <br/><br/>협상 교육내용으로는 CEO의 Win-Win 협상스킬, 성공적인 협상 & 커뮤니케이션 스킬,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협상사례, 쇼군 3인의 리더십과 협상전략, 협상 기술을 높여주는 협상력 증강공식, 모의협상을 통한 CEO 협상력 극대화, 다양한 상황과 케이스별 협상 & 커뮤니케이션 기법, 경영활동과 현업에서 바로 활용되는 실전 협상기법, 효과적인 협상전략과 상황대처 전술, 다자간 협상에서 성공조건과 구체적 협상전술, 단계별 파워협상 스킬과 영향력 강화방법, 비즈니스 협상의 프로세스와 협상 전략과 전술, 인간심리를 활용한 고도의 심리기법과 협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협상의 3개 변수(Power, Information, Time) 최적활용 노하우, 부동산 개발 및 거래시 성공적 협상스킬, 상대를 내편으로 만드는 설득 심리학, 국제 비즈니스 협상 방법과 의사소통, 교착상태와 마무리 단계에서의 협상전략, 효과적인 협상 전략가들의 숨겨진 비밀 등이 있다.<br/><br/>스피치와 협상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된 본 교육과정의 교수진으로는 김홍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동길 연세대학교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박갑주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엄용수 방송인이자 개그맨, 신영일 전 KBS 아나운서, 김정식 코미디언, 윤치영 윤치영스피치커뮤니케이션 소장, 강지연 스피치 전문 아나운서, 이봉원 윈컴피알 대표, 송민 MC, 레크레이션 사회자, 김경석 한국웅변인협회 회장, 전대수 한국스피치교육센터 원장, 민영욱 한국 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 유호연 석세스 스피치리더십아카데미 원장, 정은상 한국웃음연구소 웃음스타강사, 김병국 협상전략연구소 소장, 국제변호사, 박건식 한국협상연구원 원장, 남학현 콜럼비아E&N 원장, 박상기 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이동휘 한국협상학회 회장, 조우성 협상전문 변호사, 김성형 한국협상아카데미 대표, 박승주 PSI컨설팅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김종명 이솝러닝 대표, 김상철 네고컨설팅 대표, 이종선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 탁진규 HR Line 대표,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이 있다.<br/><br/>다른 최고경영자과정과 차별화되는 본 최고경영자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비즈니스의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 스피치와 협상 스킬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피치와 협상의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명품 스피치와 협상의 달인 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마다 3분 스피치 실습을 실시하고, TV 인터뷰를 대비하여 아나운서 교수가 직접 코칭을 해주는 동영상 스피치 실습,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하？스피치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상 교육 역시 협상에 대한 원칙과 사례, 협상 스킬,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협상법, 개인 협상, 팀별 협상 실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다.<br/><br/>교육과정의 만족도는 동문들의 추천으로 이어져 매 기수마다 50%이상의 기존 동문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교육생이 모집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타 최고경영자과정에 비해 높은 여성원우의 비율이다. 여성원우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교육과정이 활기차고 화목한 분위기로 졸업 후에서 원우 네트워크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br/><br/>원우간 다양한 동호회 활동, 선배들의 신입원우 환영파티 개최, 국내 워크샵, 제주도 졸업여행, 각종 단합대회, 와인기차여행, 친선골프, 친선등반, 총여성회 행사, 승마체험, 해외시찰(여행) 등 다양한 원우 친목 활동을 학교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여 원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문간의 교류가 SNS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br/> <br/>그 동안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한 주요 동문으로는 원로가수 김세레나, 백남선 이대 여성암전문병원장, 김재운 백석토건 대표이사, 엄용수 코미디언,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 김학면 에스까다코스메틱 대표이사, 박인교 청안산업 회장, 오병주 국무총리실 차관, 김순길 삼진에너지 회장,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임성재 제모피아 대표이사, 차상협 청심국제병원장,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장, 노충희 상계백병원장, 이태길 한국신조형협회장, 황창주 민주당 국회의원, 구차범 세희피엔씨 대표이사, 국관호 두란노아버지학교 기획본부장, 최종모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배일수 첼리쳐트레이닝 대표이사, 김상민 운양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대 한국언론문화진흥원 대표이사, 최병환 패션그룹형지 부사장, 도기안 대한공경매협회장, 문성흠 신성모자 대표이사, 성흥수 신동아고속관광 대표이사, 윤보영 시인 등이 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1.txt

제목: 성기사마귀 콘딜로마(곤지름), 조기치료 및 예방법이 관건!  
날짜: 20140218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8100000124  
ID: 01101101.2014021810000012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직장인 김모(27)양은 샤워를 하다 생식기에 난 뾰루지를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상태가 악화된 결국 병원을 찾았다. 생식기 뾰루지의 수가 늘어나고, 심하게 간지럽기까지 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콘딜로마 (곤지름)'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 두 개였던 뾰루지는 항문 주변까지 퍼진 심각한 상태였다.<br/><br/>곤지름, HPV 6·11번에 의해 발병되는 성기사마귀<br/><br/>콘딜로마라고도 부르는 곤지름은 성 접촉 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성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에 의해 생기는 피부질환의 일종인 ‘생식기 사마귀’다. 성기 콘딜로마(곤지름 또는 사마귀라고도 함.)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의 하나로서, 주로 HPV의 6, 11번에 의해 발생된다.<br/><br/>HPV는 고위험군(16,18번 등)과 저위험군(6,11번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16, 18번 등의 고위험군은 주로 고도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세포변형)이나 암과 관련이 된다. 6, 11번 등 저위험군에서는 에서는 전형적인 뾰족한 모양의 콘딜로마와 경도의 이형성증과 관련이 있다.<br/><br/>감염경로는 주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br/><br/>콘딜로마의 감염경로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성관계에 의해 주로 발생하여 외음부와 소음순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질이나 자궁경부, 항문으로도 발생하기도 한다. 감염 후 빠르면 몇 주안에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양이 초기에는 살이 살짝 올라온듯한 쥐젖 모양을 띄다가 빠른 속도로 점점 밖으로 성장해 닭벼슬이나 브로콜리 모양이 되게 된다.<br/><br/>증상은 대부분 약간의 소양감이 있지만 통증은 없으며, 크기가 커지면 괴사를 일으켜 갈라지기도 하고 이차적 감염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타난다. 진단은 전문의의 전형적인 육안소견으로 진단이 되며 애매한 경우는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기도 한다. 외음부에 사마귀가 있다해도 반드시 질경을 통한 질안과 자궁경부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항문 주위에도 꼼꼼히 살펴 보게 된다.<br/><br/>약물, 레이저 치료, 전기소작술 등으로 치료 <br/><br/>애플산부인과 최주혁 원장은 "성기 사마귀의 치료는 발병 초기일수록 치료가 잘되는데 그 방법은 약물을 바르거나 파괴요법이 이용되며, 파괴요법으로는 주로 레이저 치료나 전기소작술이 이용되지만 이때는 부분 마취를 한 후 시행되므로 통증은 그리 많지 않다." 말했다. <br/><br/>면역이 억제된 환자는 재발이 잘 되므로 치료 후에도 추적관찰이 시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면 바로 치료해야 한다.<br/><br/>애플산부인과 신촌점 최주혁 원장은 "파괴요법,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순 있지만 근본적인 인유듀종 바이러스 감염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재발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된 몇 안 되는 바이러스다. 성경험 전이거나 혹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하고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받아 감염여부를 확인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2.txt

제목: 직장암 수술 전 MRI검사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날짜: 20140213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3100000152  
ID: 01101101.201402131000001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통상적으로 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데는 정확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칠곡경북대병원 대장암센터 연구팀은 미국대장항문학회 공식학회지인 ‘결장과 직장의 질환’ 1월호에 실린 ‘직장암 조직에서의 MRI의 진단 정확도’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br/><br/>연구팀에 따르면 MRI는 암의 침윤 깊이(조직에 파고 든 정도)를 예측하는 데는 정확도가 82.5%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림프절 전이 예측에는 약점을 드러냈다.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 방법의 중요한 지표인 감수성과 양성 예측률을 60%에 그쳤다.<br/><br/>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된 2차원 영상으로 보이는 림프절 이미지와 실제 수술 후 절제한 조직이 일치하도록 ‘침 정위술 실험 기법’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적용했다.<br/><br/>칠곡경북대병원 대장암센터 박준석(40)교수는 “<span class='quot0'>직장암 침윤 정도가 3기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면 방사선 치료를 한 뒤에 수술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기 대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많은 외과 의사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나 MRI의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데 그 정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 왔고 합병증과 치료비 증가가 논란</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진단 결과 림프절 전이가 의심스러웠는데 막상 수술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며 “현재 기술로는 림프절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데 MRI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부정확한 만큼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치료 여부를 결정 할 때는 침윤 정도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br/><br/><br/><br/><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3.txt

제목: 日 국제개별화의료학회, 제18회 학술세미나 오는 6월 개최  
날짜: 2014021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2100000086  
ID: 01101101.2014021210000008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신 수지상 암백신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2003년 개별화 의료에 근간을 두고 설립됐으며, 오는 6월 일본 삿포르에서 제1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br/><br/>이 학회는 지난 17회 학술세미나에서 ‘신(新) 수지상세포 백신치료’가 전이·재발암 환자 74.4%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이 2013년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56.41%) 22명, 진행된 환자 10명(25.64%)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74.4%에서 치료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br/><br/>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게 암세포의 정보를 제공하고, 암세포의 항원 정보(표식)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는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한다.<br/><br/>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는 것이 아베 이사장의 설명이다.<br/><br/>수지상세포는 인체에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br/><br/>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하여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이사장에 따르면 이 기술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br/><br/>수지상세포의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해야 한다. 아베 이사장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졌다. 또 많은 일본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한 후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br/><br/>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아베 이사장의 입장이며, 또한 매번 소량만 채혈로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고 아베 이사장은 전했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4.txt

제목: 계명대의대, 기초의학에 나노기술 접목  
날짜: 20140210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0100000198  
ID: 01101101.201402101000001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노로봇,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제…. 나노(1㎚는 10-9)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응용한 의료용 나노로봇이나 체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명대가 나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질병진단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br/><br/>계명대(총장 신일희)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김권배),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대전의 기술원에서 나노기술 연구갭리 지원 및 전문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명대 의대와 동산의료원 등 관계자들은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 MOU체결에 이어 기술원이 보유한 최신 나노기술 개발 관련 장비와 설비 등을 둘러보았다.<br/><br/>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MRC)에 참여, 10여명의 연구진이 진단 및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br/><br/>나노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동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각종 진단 및 치료기법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연구진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료용 나노로봇을 개발, 동물실험을 통해 고형암의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고, 피 한 방울로 암 등 각종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br/><br/>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기술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최신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나노기술 연구 개발과 기초의과학 연구를 실용화하는 거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MOU를 계기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향후 기초의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5.txt

제목: 건보료 고지서에 흡연 폐해 경고 문구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710013414778  
ID: 01101101.2014020710013414778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격적으로 흡연 폐해 알리기에 나선다.<br/><br/><br/><br/>건보공단은 7일 "건보료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문 등에 흡연경고 문구를 넣어 흡연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매월 발송하는 1,030만건의 건보료 고지서에 3월부터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 위험 증가""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 강력한 흡연경고 문구가 담긴다. 연간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연간 3,000만건의 성인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이미 이 달부터 흡연경고 문구를 넣어 발송하고 있다. <br/><br/><br/><br/>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br/><br/><br/><br/>또한 담배소송을 포함한 금연운동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6.txt

제목: 일본 30세 여성 학자, 만능줄기세포 양산 길 열었다  
날짜: 20140203  
기자: 이훈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3100000007  
ID: 01101101.201402031000000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연구진이 쥐 실험을 통해 성숙한 체세포를 다양한 조직이 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유전자 조작이 필요한 유도만능줄기(iPS)세포와 달리 체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담그는 간단한 방식이어서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r/><br/>일본 고베(神戶)의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달 30일자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논문을 싣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후 1주일 된 쥐의 임파구(백혈구의 일종)를 약산성 용액에 30분간 담갔다가 배양했더니 세포의 7~9%가 일주일 내에 만능줄기세포로 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자극촉발만능(STAP)세포라고 명명한 이 세포를 쥐에 이식한 결과 신경, 근육, 장기 등 다양한 세포로 분화했다. 연구를 주도한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 박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인간 세포에도 적용될 경우 장기·조직 재생, 암 억제 등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r/><br/>지금까지 만능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체세포에서 떼어낸 핵과 핵을 제거한 난자를 결합해 배아줄기(ES)세포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난해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교수가 실험 성공을 알리는 논문을 발표했다. 황우석 박사가 2004년 세계 최초로 ES세포를 배양했다는 허위 논문을 발표한 지 9년 만이다. ES세포 배양은 그러나 성공률이 낮고 난자 파괴로 생명윤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인 iPS세포는 체세포에 4가지 유전자를 주입해 만드는 것으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일본 교토대 교수가 2006년 개발했다. 세포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체내 이식 때 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br/><br/>STAP세포는 iPS세포보다 배양 절차가 간단하고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iPS세포와 ES세포와 달리 태반으로도 분화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STAP세포 배양법이 인간 세포에도 적용될 경우 병든 조직을 재생하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크리스 메이슨 영국 런던대 교수는 "iPS세포를 이용한 노안(老眼)치료를 예로 들자면 세포 배양에만 10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다"며 "STAP치료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다면 치료 기간ㆍ비용에 획기적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갓 태어난 쥐에 한정된 실험이고 STAP세포의 발현 구조가 해명되지 않은 점은 한계다. 교도통신은 이번 실험에 참여했던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STAP세포로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치료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br/><br/>한편 실험을 주도한 오보카타 박사가 무명의 젊은 여성 학자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와세다대 응용화학과를 나와 2011년 하버드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지난해 봄 네이처에 STAP세포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가 "생물세포학 역사를 우롱하는 논문"이라는 이유로 게재를 거절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보카타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유학 중 STAP세포를 처음 배양한 뒤 실험으로 입증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실수로 얻은 결과'라며 믿어주지 않아 힘들었다"며 "그러나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기술이라는 신념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완해 네이처에 다시 투고했다"고 회고했다.<br/><br/>이훈성기자 hs0213@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7.txt

제목: 밥보다 효소생식, 패스트푸드이면서 슬로우푸드인 이유  
날짜: 20140203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3100000181  
ID: 01101101.2014020310000018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늘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br/><br/>특히 나 홀로 식사를 해야 하는 싱글족과 체중을 줄이려는 다이어트족이 늘어나면서 식사대용의 생식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항생제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가 인체의 항생제 내성을 키운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언론에 공개되면서 생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연재료로 만든 '밥보다 효소생식'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br/><br/>생식은 곡류·채소류·과일류 등의 자연식품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생식에 그대로 보존된 파이토케미컬이 암과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암센터 등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현대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난 생식의 효능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식재료의 영양을 그대로 담았다는 측면에서 슬로우푸드이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선 패스트푸드다. 동물성 식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각종 천연식물성 식재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각종 야채,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곡류 등 40여 가지의 엄선한 국산 원료로 만들어졌다. 또한 몸에 좋은 효소가 4g이나 들어 있다. 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가 불가피한 선식과 달리 '밥보다 효소생식'은 영하 40도씨에서 급속동결 건조하여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한 포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낱개 포장이라 간편하게 물이나 우유 등을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초간편 건강식이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한 끼 식사로 먹으면 40여 가지의 생식과 효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아침을 챙겨먹기 힘든 직장인, 매끈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려는 여성,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소식을 원하는 주부들의 한 끼 식사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8.txt

제목: “잠 충분히 못자면 암 성장 빨라진다”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9100000156  
ID: 01101101.2014012910000015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경우 암이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 암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아동변원 연구팀이 수면과 암의 상관관계를 동물실험으로 분석한 결과를 ‘Cancer Research’ 저널에 발표했다.<br/><br/>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이 손상된 쥐들의 체내 면역계가 잠을 잘 잔 쥐들의 면역계보다 조기 단계 암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팀은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인위적으로 종양을 발생하게 하는 종양세포를 주입했다. 그런 다음에 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깨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한 반면 다른 한 그룸은 충분히 잠을 자도록 했다. <br/><br/>4주 간의 연구결과 잠을 제대로 못 잔 쥐들의 종양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쥐보다 종양의 크기가 2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개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쥐의 허벅지 근육에 종양세포를 주입한 추가 연구결과 잠을 잘 못 잔 쥐들이 종양이 더 침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고잘 박사는 “<span class='quot0'>수면 자체가 종양의 침입이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처음 동물실험으로 입증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를 위한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매커니즘 자체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초점이 종양 자체가 아니라 초기 암을 통제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면역체계의 손상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br/><br/>고잘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초기 암세포를 근절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시스템 기능이 저하돼 암과 같은 세포를 더욱 키우게 되는 셈</span>”이라고 밝혔다. 　<br/><br/>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약 70만명의 미국인이 만성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39.txt

제목: [카드정보 유출 대란] "건당 60원" 암거래… 고객 이름·전화·주민번호가 '좌악~'  
날짜: 20140125  
기자: 강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5100000022  
ID: 01101101.2014012510000002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건당 60원. 카드번호 포함 시 건당 100원."<br/><br/>개인정보 불법매매 시장에서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거듭 외부로 유통된 정황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정보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베이스(DB)' '카드 신상 DB' 등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KCB DB' 샘플의 경우 최근 정보가 유출된 KB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 고객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나와있다. 암거래 DB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국민카드 고객은 "발급받은 지 2년 정도 됐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뒤에 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해 분실한 카드 정보가 최근 시장에서 거래된 롯데카드 고객은 "10여가지 정보가 유출됐다고 나왔는데 인터넷에 휴대폰 번호나 주소가 떠다닌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br/><br/>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유출되지 않았는데 유통되는 정보에는 포함된 것 자체가 이번 유출사건과 다른 건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도 "KCB직원이 유출한 원본데이터 양식과 암시장에서 돌고 있는 파일은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출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br/><br/>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한 KCB직원 박모(39)씨의 원본파일과 박씨가 거래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대출모집인의 자료도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외부로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해명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끄는 것에 급급해 이미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책은 뒷전으로 미뤄 놓은듯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br/><br/>더욱이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 역시 불법 시장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인 정보는 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지만 고급 정보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된다. 정보를 빼낸 박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현금을 받고 퀵서비스나 지인을 통해 직접 전달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폰번호나 주소 외에 연소득, 대출상담내역, 대출현황 등 고급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한 대출모집인은 "소득 여부와 연봉, 직장이 어딘지 전세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해당 정보 가격은 급격히 치솟아 건당 만원이상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br/><br/>유통업자들이 정보를 재가공해 판매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 대출업체 관계자는 "정보를 문서로 출력 후 이를 스캔하고 다시 액셀로 자동 변환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0분 내로 정보가 재가공된다"며 "많은 종류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곳에서 유출된 정보 짜깁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 원본데이터와 양식이 달라지지만 유형별 정보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료도 원본데이터에서 여러 차례 편집, 가공돼 원본 출처가 모호해졌을 수 있는 것이다.<br/><br/>강지원기자 stylo@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박근혜' 이름이… 경악할 동영상<br/>▶ 최악 사태 근원 제공업체 징계 못한다니<br/>▶ 고객 정보 도둑맞고… 보호해 줄테니 돈 내라?<br/>▶ "우린 책임 없어요" 어이없는 은행들<br/>▶ 개인정보 털리기 쉬운 '최악의 암호'<br/>▶ 금융공기업 감사는 '꿀보직'… 정치인 낙하산들이 곶감 빼먹듯<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0.txt

제목: "가수 지망생 트레이닝… 이젠 보컬 한류 일으켜야죠"  
날짜: 20140124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4100000244  
ID: 01101101.20140124100000244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전 세계적으로 가수 지망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트레이닝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보니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br/><br/>'비오는 날의 수채화'로 유명한 가수 강인원(58)이 '보컬 한류'를 일으키고자 연예기획사를 차렸다. 신인 가수를 발굴해 스타로 만드는 기획사와 달리 보컬 트레이닝과 한류를 접목한 점이 이색적이다. <br/><br/>그는 최근 휘성, 빅마마, 케이윌 등의 보컬 트레이닝을 맡았던 장효진씨, 해외 프로모션 전문인 문상원씨와 VSM을 설립했다. VSM은 보컬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뜻의 'Vocal Secret Method'를 줄인 말이다. VSM은 국내외 가수 지망생의 보컬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겸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사와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br/><br/>빼어난 가창력의 가수라기보다 작곡을 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진 그가 보컬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3일 만난 그는 "한창 활동할 때도 작곡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했다. "2007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막상 수술하느라 열어보니 암 덩어리가 꽤 컸나 보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건강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3년 전엔 공연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군요. 노래 부르는 데 한계를 느꼈죠. 노래하던 사람이 못 하게 되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때 보컬 트레이너를 알아 보다가 장효진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 목소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굉장한 걸 발견한 거죠."<br/><br/>강인원의 가수 경력은 30년이 훌쩍 넘는다. 1979년 포크 그룹 '따로 또 같이'로 데뷔해 1985년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로 본격적인 솔로활동을 시작했다.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의 영화음악을 맡아 타이틀 곡이 크게 히트한 뒤엔 주로 TV 드라마 음악 작곡가로 활동했다. 2000년대 들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br/><br/>마이크를 내려 놓은 뒤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을 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신인 가수 앨범 제작에도 나섰지만, 그 역시 실패의 쓴맛을 봤다. 결혼 생활에도 부침이 있었다. 1995년 배우 이일화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1년 만에 결별했고, 2005년 18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새 삶을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턴 LED 조명 제작 업체와 휴대전화 보호필름 제작업체를 경영하며 의욕적으로 음악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br/><br/>"노래할 수 없어 사업을 한 건데, 사업이 잘 될 때도 신이 안 났어요. 이제 노래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음악으로 돌아왔죠. 요즘엔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VSM 사업 중 하나로 올해는 중국과 일본의 유명 7080 가수들과 제가 한 팀을 이뤄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br/><br/>사업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고, VSM 경영과 가수 활동 재개를 위해 중국, 일본 관계자들과 접촉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는 음악을 다시 할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br/><br/>"가수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요샌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노래를 부르면 엔도르핀이 많이 나오고 뇌도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br/><br/><br/>고경석기자 kav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1.txt

제목: 암치료, 병이 아닌 사람을 보라  
날짜: 2014012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2100000176  
ID: 01101101.2014012210000017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의사이자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전 MD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는 암은 바로 수술을 하는 병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암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의 문제이며 특정 부위만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조직 파괴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br/><br/>이미 의료계에서는 전통적인 암치료(수술·항암·방사선)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고 면역치료, 대체요법 등 다양한 대안을 연구와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br/><br/>이 같은 흐름이 점차 확산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암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항암제로 살해 당하다’, ‘12주 한방면역요법’ 등의 관련 서적을 출판, 방송이나 언론매체들도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br/><br/>면역치료는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암 치료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발 빠르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동·서양의 양·한방 통합 치료 선택하고 있는 것. 작년 1월 SBS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암 치료의 새로운 길 면역”은 이와 같은 면역치료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전달했다. <br/><br/>현대의학과 첨단 생명공학의 나라 미국의 경우 1971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암 정복에 나서고 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암의 역사와 암의 정복을 위한 활발한 암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3대 암센터 중 하나인 엠디엔더슨암센터는 통합의학과를 설립하여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면역치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br/><br/>세계적 키워드인 ‘면역’. 면역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의 효과는 어떨까?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170명을 대상으로 한방면역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br/><br/>이번 조사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8가지(오심구토, 체중감소, 기력저하, 빈혈, 탈모, 손발저림, 피로감, 통증)에 대하여 한방치료로 인한 호전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해 질문한 결과 종합평균 5.45점으로 나타났다. <br/><br/>피로감의 호전 정도가 평균 5.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피로감 증상이 있는 응답자의 92%가 피로감이 호전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br/><br/>치료기간과 내원 빈도에 따른 호전정도에 관한 조사는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내원 빈도는 1주일에 3~5회를 내원해야 호전도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br/><br/>이번 조사를 통해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암치료를 위한 한방치료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92.3%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했으며, 한방 면역치료에 대해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에 대한 응답도 91.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2.txt

제목: 인류는 갈수록 진화한다는데… 왜 천식·암 환자는 많아지는 걸까  
날짜: 2014011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7100000172  
ID: 01101101.2014011710000017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찰스 다윈이 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가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해왔다면 현재 우리의 유전자는 과거보다 우수해서 더 건강하고 질병에 덜 걸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비정상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을까. 왜 암에 더 많이 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왜 그렇게도 많을까. 진화론의 논리대로 모든 생물학적 현상이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나타난다면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인류의 질병도 유전자가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인 저자는 진화론만으로 발병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변화한 환경에 유전자가 적응하지 못할 때 질병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수백만년 동안 수렵채집의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인류의 유전자가 최근 1만년 사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서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암과 같은 질병이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런 현상이 개인의 고통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위기라고 우려한다. <br/><br/>저자는 질병을 초래한 환경 요인으로 먹거리, 기후변화, 햇빛, 오래 달리기, 술, 담배, 산업혁명, 화석연료 등 8가지를 꼽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에서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감염병이 강력한 생물 무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감염병뿐 아니라 오늘날의 질병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변화에서 시작됐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오늘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인류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br/><br/>권대익기자 dk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3.txt

제목: 암 활동 멈추면 약 끊어도 될까… '기능적 완치' 연구 활발  
날짜: 2014011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6100000253  
ID: 01101101.2014011610000025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40대 남성 이모씨는 올해로 약을 끊은 지 10년째다. 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여느 건강한 이들과 별 차이 없이 생활한다. 검사에서 재발이 걱정됐던 적이 지난 10년 동안 두 번 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치료 없이도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가 앓는 병은 혈액암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이다. 몸에 암세포는 남아 있지만 희한하게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얌전하다. 이렇게 오래 복약을 중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이씨가 처음이다. <br/><br/>과거 불치병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평생 약 먹으며 잘 관리하면 되는 만성질환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완치를 내다본다. 약 안 먹어도 암이 활동하지 않는 '기능적 완치'에 국제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br/>암 같은 중병을 다루는 의사들은 완치라는 표현에 유독 민감하다. 다 제거된 듯 보이던 암이 환자도, 의료진도 모르는 사이 훌쩍 자라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그런데도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일본 등의 의료진이 복약을 중단하는 기능적 완치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환자는 항암제 복용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기능적 완치'가 암세포가 다 제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암세포가 최소한만 남은 채 더 늘지 않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한다. 암세포가 끊임없이 새끼 치며 증식하는 본래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다. <br/><br/>올해로 5년째 국내 15개 병원과 함께 기능적 완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동욱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은 "지금까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00명이 약을 끊었고 그 중 이씨를 포함해 약 70%가 약을 안 먹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용 중단 후 재발은 보통 6개월 이내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br/><br/>장기나 조직을 공격하는 모든 암세포는 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실제로 단백질을 비롯한 체내 대사물질을 소비하며 새끼 암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건 전체 암 줄기세포의 약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휴지기 상태에 있다.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암제 대부분은 활동 중인 1% 암 줄기세포의 새끼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항암제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활동이 활발한 암세포는 거의 죽고 검사에서 암 유전자 수가 '0'으로 기록된다. <br/><br/>기능적 완치 연구는 바로 이런 환자들을 주목한다. 암세포가 존재하긴 하지만 장기 기능과 환자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동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있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굳이 부작용 많고 비싼 항암제를 평생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환자의 면역력이 꼽힌다. 암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선 새로 암세포가 생겨나더라도 면역세포가 알아서 제거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면역세포의 능력을 키우면 기능적 완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br/><br/>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몸 안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한 항암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완치로 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학계에서 기능적 완치 기준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암 유전자를 찾아내는 기술의 정확도나 예민도가 병원마다, 의료진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능적 완치의 걸림돌이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유전자 검사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br/><br/>기능적 완치 환자가 많아지더라도 진단 초기에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전문의가 동의한다. 김 교수는 "진단 직후 2, 3년은 암세포가 가장 많은 시기"라며 "이 기간 동안 환자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암세포에 유전자 변형이 쉽게 일어나 약에 내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기능적 완치는커녕 치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김 교수팀의 임상연구에선 표적항암제를 적어도 3년 이상 썼고 예민한 유전자 검사에서 2년 넘게 암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환자들만 약 복용을 중단했다.<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완전 폐지 땐 환자 부담 줄지만 건보료 오를 수도<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성경험 탓? 은밀한 고통에 떨고 있는 처녀들<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너무 많이… '월경과다' 그녀의 은밀한 고통<br/>▶ 가난한 남성, 부자 남성보다 10년 일찍 죽는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4.txt

제목: 대한민국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날짜: 20140115  
기자: 송원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5100000040  
ID: 01101101.201401151000000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의과학 및 의료보건 특성화 <br/><br/>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2012년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가 합쳐저 새롭게 출범한 이후 2020년 10대 명문사학 진입을 목표로 도약중이다. 박애·봉사·애국의 건학이념 아래 글로벌캠퍼스(성남)와 메디컬캠퍼스(인천) 2개 캠퍼스에 16개 단과대학, 75개학과에 2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br/><br/>가천대는 대학 특성화 발전을 위해 ‘G2N3+GL’ 전략을 내세웠다. 가천대가 보유한 세계 수준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뇌융합과학원과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 난치성 질환 치료 신약 개발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달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G2)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국가 선도적 연구 분야 3개(N3)를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 경영 분야, 건축 및 예술문화 분야, 공공 분야에서 차세대 사회지도자급 인력(Global Leader·GL)을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는 입학정원 525명에 재학생수 3,896여명으로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이 설치돼 있으며 의과학 및 의료보건 분야를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각 부문 우수 교수를 초빙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능력이 뛰어난 교수에게는 강의책임시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고, 연구정착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각종 장려책으로 연구역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인 중국어, 일본어 등 2~3개의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취업률 100%를 위해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교생이 하나 이상의 전공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 장려해 2012년도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합격률이 100%, 응급구조사·방사선사 96% 등으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br/><br/>1) 간호대학<br/><br/>간호학과는 명실상부한 우수 간호인력 배출의 요람으로 졸업생들은 보건소, 학교, 정부 행정기관, 국내외 병원 등의 각계각층에서 인정을 받으며 활약 중이다. 현재 간호대학 교수는 22명이다. 재학생의 수는 876명으로, 2012년 경원대 간호학과와의 통합이후의 학생 수는 한 학년 당 235명이며, 2014년부터 신입생 정원이 증원돼 255명이다. 또한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원 내에 노인·마취·응급·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이 개설됐으며, 마취 전문간호사 과정은 전국에서 가천대가 유일하다.대부분의 실습은 가천대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등 특수 분야는 전문실습지를 확보해 실습하고 있다.2010~2012년 3년 연속 국가고시 100%의 합격률을 기록 중으로 전체 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10~15% 정도다.<br/><br/>2) 보건과학대학-의공학과<br/><br/>의공학과의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BME)이란 인체를 진단하는 의료용 센서(DNA, 단백질, 세포, 조직, 심장 질환 검출 등), 진단장비(MRI, CT, X-선, 초음파 영상장치 등)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치료용 전열기, 마이크로파, 원격 의료시술용 로봇 등)을 개발 및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총 재학생의 수는 165명으로 모든 학생이 지도교수와의 1학기 3회 이상의 상담으로 개인상담 및 취업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공기사 자격증 취득 특강과 취업진로를 위한 특강이 매년 개설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br/><br/>학생들은 4학년 여름방학 때 실습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뇌융합과학원, 길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br/><br/>이 밖에 의공학과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연구소, 병원 의공팀 등에서 인정을 받으며 공학도로써 활약을 하고 있다.<br/><br/>3) 보건과학대학-응급구조학과<br/><br/>응급구조학과는 전국 10개 응급구조학과 중 하나로 응급처치에 관한 과학적 의료지식과 실무 중심의 기술을 교육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의학과 전문 응급의료관련 이론을 교육함은 물론 응급처치 관련기관에서 현장 실무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br/><br/>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학교 측과 실습 연계를 맺은 10여 개 의료기관 및 인천관내 소방 안전센터에 실습생 자격으로 파견된다. 학생들은 4학년 2학기에 시행되는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응급구조사1급)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으며, 임상경력을 토대로 소방공무원(119구급대)과 보건직 공무원 및 소방안전관리사(공무원)로도 진출할 수 있다. <br/><br/>4) 보건과학대학-방사선학과<br/><br/>방사선학과는 가천대 길병원과 뇌융합과학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와 연계하여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방사선 치료 기술학, 소동물 단층촬영 등 기초 방사선 과학 분야와 임상 분야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br/><br/>특히 가천대 길병원에서 첨단의료 장비들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며 담당 교수진이 임상에서 실무를 직접 적용, 지도하는 등 임상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국내ㆍ외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보건소, 보건직공무원, 의료장비 및 방사성의약품판매회사, 보험회사 대인 보상팀, 의료영상전송(PACS)관련회사 등에 종사하게 된다. 졸업 후 취득 가능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는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및 방사선 취급감독 면허, 관리사, 의학물리사, 임상초음파사 등이 있다. <br/><br/>5) 보건과학대학-치위생학과 <br/><br/>치위생학과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유능한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가천대 길병원 치과센터를 비롯한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의 지도 치과위생사와 협의를 통해 임상실습 프로토콜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구강보건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능력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 전담 지도 교수제 및 1:1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향상과 더불어 전문적인 진로구축에 힘쓰고 있다. 2009년부터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치위생학 전공의 석사과정을 개설 운영하면서 치위생학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정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치위생학계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r/><br/>6) 보건과학대학-물리치료학과<br/><br/>물리치료학과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개설된 인천 유일의 학과이다. 물리치료학은 의학 전반에 걸쳐 다뤄지고 있으며, 인체의 생리 및 기능에 대한 구조적 이해도가 높고 의학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기술을 교육하는 의료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br/><br/>국내외의 급격한 임상, 교육과 연구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임상과 연계된 첨단화된 물리치료 신기술과 이론을 통한 물리치료 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또한 다년간 경력을 갖춘 물리치료학 전공 교수진들이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가천대 길병원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임상분야로의 진로가 밝다. 물리치료학과 졸업 후 기능장애를 입은 환자들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물리치료사를 활동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국가고시 100%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물리치료학과는 면허취득자는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거나 병원, 재활센터, 스포츠구단 등 여러 기관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br/><br/>7) 보건과학대학-운동재활복지학과<br/><br/>운동재활복지학과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운동재활을 통한 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과이다. <br/><br/>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운동재활과 건강운동을 지도 할 전문 인력양성은 시대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책무는 국가주도의 건강복지차원에 인력양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 또한 웰빙 욕구증가 및 여가시간 증가, 신체활동의 기회 감소 및 각종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적인 질병과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br/><br/>이에 본 학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운동재활전문가를 양성하여 건강복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재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킴으로써 실전형 운동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회로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8) 약학대학<br/><br/>약학대학의 ‘G-ACE Program’(Global, Green, Gachon and Gil Adventure, Creativity, Excellence)은 선택과 집중, 글로칼리제이션, 의무와 경쟁의 개념을 적용한 교육과정이다. 학부교육과정인 3년차의 전문화기반 교육과정(G-A: Gachon Excellence Progam)을 골자로 연구·임상약사를 중점 특성화 분야로 선정, 보다 차별화된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약학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약학인 양성을 위해 졸업논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학이념인 박애·봉사·애국의 실현을 위해 재학 중 30시간의 봉사활동이 졸업요건이다. 1, 2학년 학생에겐 전액 장학금을, 연구 및 임상약사 트랙을 선택한 3, 4학년에겐 전액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학생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천연물신약(한의과대학) 및 첨단약물제제개발(바이오나노대학)에 관한 인프라를 확립, 세계적 수준의 의약·생명과학·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br/><br/>뇌융합과학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등 기초과학 아낌없는 투자 <br/><br/>가천대는 이길여 총장의 굳은 의지 아래 총 1,800억원을 들여 뇌과학연구소(2004년), 바이오나노연구원(2007년), 암당뇨연구원(2008년)을 잇달아 설립하는 등 매년 기초과학 연구분야에 파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설립된 뇌과학연구소는 MRI와 PET를 혼합한 ‘7T PET-MRI’를 이용해 초정밀 뇌신경 지도 제작에 성공했다. 이 지도는 뇌 부위 등을 구조적으로 영상화한 기존 뇌지도를 넘어 뇌신경다발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 수술 좌표는 물론 뇌질환을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3월 뇌과학연구소, 치매·파킨슨병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뇌질환 유전체 연구소, 나노의학 연구소, 테라그노스틱 컴파운드 개발연구소 등을 총 5개 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은 뇌융합과학원을 설립했다.향후 인재 양성을 위한 뇌융합대학원과 연구업적의 신속한 임상적용을 위한 뇌병원도 설치할 예정이다.지난 2008년 설립된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은 마우스 대사질환특화센터,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연구센터, 실험동물센터 등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인천 유일의 바이오 분야 연구교육기관으로 만성질환인 암과 당뇨의 정복을 위해 국내 최대 실험용 설치류 실험센터를 설립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전임상 실험을 시행해 암, 당뇨의 치료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 암당뇨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게놈 지수를 작성했으며, 최근에는 손쉽게 암을 진단하고, 암의 진행단계는 물론 예후까지 판별할 수 있는 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조직검사로는 종양의 악성·양성 여부만을 판별 하지만 새로 개발된 진단법은 단 하루만에 종양의 예후, 전이 가능성, 치료효과가 좋은 약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암당뇨연구원은 현재 하버드대,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석 플로리다 주립 의과대학 교수와 진행하는 유전성출혈성모세혈관확장증에 대한 공동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다.<br/><br/><br/><br/>송원영기자 wys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5.txt

제목: 폴란드산 ‘아로니아’의 효능을 아시나요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0100000084  
ID: 01101101.20140110100000084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SBS 생방송투데이가 10일 폴란드산 아로니아의 강력한 항산화 효능에 대해 소개한다.<br/><br/>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인 아로니아는 작고 검은 자줏빛의 신맛이 나는 열매로 블랙쵸크베리 또는 쵸크베리로 불리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이미 그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br/><br/>아로니아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히 영하 20도의 추위와 5개월간의 우기 없는 강렬한 자외선을 받는 가혹한 환경에서 최적으로 자생하며, 성장 과정에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을 많이 축적하게 된다.<br/><br/>웰파인 아로니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폴란드에서 아로니아를 대량 생산해 낼 수 있어 대규모 상업적인 재배를 통해 전 세계 생산량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내에도 원액 엑기스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특히 폴란드산 아로니아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80배, 야생 블루베리의 3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안토시아닌은 암·당뇨 등 중증 질환이나 인체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다. 토코페롤보다 5~7배 강한 효과를 보여 눈의 피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와 야간 시력 장애 등에도 효과가 있다. 항 당뇨 효과, 소염 및 살균작용, 치매 예방 등 노화 방지는 물론, 피를 맑게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고지혈증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br/><br/>웰파인 아로니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아로니아 농축액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폴란드인은 많은 육류 섭취에도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매우 적기 때문에 ‘폴리쉬 패러독스’라고도 알려져 있다</span>”고 소개했다. 생방송투데이에선 아로니아 농축액을 매일 보약처럼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6.txt

제목: 삶의 마지막… 그러나 죽음 없인 삶도 없다  
날짜: 20140110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0100000108  
ID: 01101101.201401101000001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죽겠다는 말, 참 흔히들 한다. 하기 싫어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귀찮아 죽겠단다.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죽음'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전달하는 데는 그만큼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을 것이다. <br/><br/>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체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덜 힘든 상태다. 요즘처럼 추운 날 창을 열어놓은 채 난방 하는 집, 우리 몸이 딱 그런 상황이다. 밖에서 끊임없이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와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집 안의 난방 시스템은 쉴 새 없이 가동돼야 한다. 이런 무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난방 시스템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 그때부터는 집 안과 밖이 온도가 같은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과학자인 저자들의 눈에는 난방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인체로 치면 죽음이다. <br/><br/>실제로 우리 몸의 난방 시스템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 야금야금 낡아간다. 난방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 중 고장 나거나 수명을 다한 것들이 매일 약 100억개씩 죽는다. 눈의 망막 세포는 단 10일, 피 속 적혈구 세포는 120일, 폐 세포는 400~500일 일하다 사라진다. 이들의 자리를 새 세포가 대체하지만, 이런 '작은 죽음'들은 결국 언젠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완전한 죽음을 맞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 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죽음은 자연스럽다. <br/><br/>는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까지 샅샅이 파헤쳐 놓았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할 때 난방 시스템의 처절한 몸부림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영양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장기를 공격해 식민지화하는 암세포의 제국주의적 행태,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에 공격 당한 세포들이 침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키는 치열한 전투, 쥐약에 들어 있는 독 성분을 만나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다 호흡기관이 멈춰서기까지 과정 등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br/><br/>암을 비롯한 수많은 병, 각종 미생물과 독 등은 저마다의 노하우로 난방 시스템을 여지 없이 무너뜨린다. 인체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말 그대로 기적 같을 뿐이다. 교통사고나 고문, 사형, 살인처럼 더욱 부자연스러운 사망마저 보태면 죽음의 기제는 한층 다양해진다. <br/><br/>방부 조치나 화장을 하지 않은 시체는 사후 이틀 정도 지나면 맹장 근처 피부에 초록색 반점이 나타난다. 부패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시신의 내장을 이미 미생물이 장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지구에서 생명 모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원자들을 지구 생태계에 제공'하는 단계다. '삶을 위한 죽음'이란 제목처럼 말이다. <br/><br/>이토록 다양한 죽음에 잘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따윈 없다고 저자들은 책 말미에서 못 박는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사람들은 마치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며, 절대 살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죽는다"고.<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247.txt

제목: ‘꿈의 암치료기’ 부산 첫 도입  
날짜: 20140109  
기자: 강성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9100000066  
ID: 01101101.2014010910000006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방사선보다 치료율이 월등히 높아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기장군에 설치된다. <br/><br/>기장군은 10일 오후 3시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옆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연다. <br/><br/>센터는 1,950억원을 투입해 8만8,139㎡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6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br/><br/>센터에는 빛의 70% 속력으로 가속된 탄소입자가 인체 내 암세포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가 설치된다.<br/><br/>중입자 가속기는 기존 방사선과는 달리 암 부위 도달 전에는 20~30% 가량의 방사선량을 전달하고, 암 부위에는 나머지 70~80%의 방사선량을 전달해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한다.<br/><br/>때문에 정상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이 암 치료가 가능하다. 또 치료과정에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중입자 치료 선도국인 독일과 일본의 과거 10여년의 중입자치료 임상결과를 보면 암 종류에 따라 50~90%의 생존율을 나타냈다.<br/><br/>기존 방사선 치료는 전체 치료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반면 중입자 가속기는 치료기간을 2~3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br/><br/>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현재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에서 총 8개만 운영되고 있다.<br/><br/>기장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중입자치료센터와 함께 2016년과 2018년 각각 완공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방사성 동위원소융합연구원이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의ㆍ과학 융합산업의 메카가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br/><br/>강성명기자 smka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